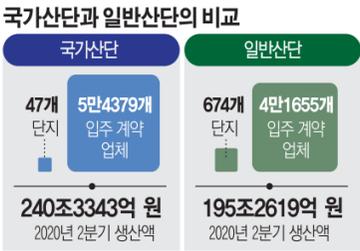


국가산단만 임대료 감면 일반산단은 한 곳도 없어

본지 17개 지자체 전수조사

국가산단보다 규모 작은 기업 많고 생산성 떨어지는데도 지원서 빠져 관리공단 "사실상 개점휴업 안타까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산업단지(산단)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임대료 감면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그 범위를 국가산단으로 한정함으로써 일반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제2차 실물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가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5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 키콕스(KICOX) 벤처센터 등 42개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보유 시설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다.

국가산단은 2개 이상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치는 곳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관리를 맡는다. 반면 일반산단은 시도 차원에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하며 개발과 관리는 산단공과 지방

자치단체, 각 산단 관리공단이 담당한다. 21일 산단공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국에 분포한 국가산단 수는 47개, 일반산단은 674개다. 입주 기업 수는 국가산단이 5만4379개로 일반산단(4만1655개)보다 많다. 생산액 역시 국가산단(240조3343억 원)이 일반산단(195조2619억 원)보다 많다. 1인당 생산성은 국가산단이 일반산단보다 7.89% 높다. 문제는 일반산단 입주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함에도 이번 대책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투데이가 17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일반산단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시행하는 곳은 없었다. 다만 일부 창업허브나 지식센터에 입주해 있는 곳에만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2~3곳 있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에만 기대고 있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일반산단 관계자는 "일반산단 입주 기업은 통상 일반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시 차원에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책자금을 이용하고 있다"며 "규모가 작은 데다 지원 기간도 길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주 기업이 어려워도 일반산단 관리공단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원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일반산단 관리공단 관계자는 "관리공단은 지자체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이를 입주 기업에 발송하고 안내하는 역할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산단 입주 기업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성명기 성남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국가산단 중소기업보다 일반산단 입주 기업 규모가 더 영세한 경우가 많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기업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산단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며 "지원 범위에 일반산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산단의 경우(임대료 감면 등) 조치를 권고할 수 있지만, 산단마다 관리자가 달라 어렵다"고 밝혔다. 이다원 기자 leedw@



웃음꽃 다시 피는 학교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21일 재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교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경기 김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17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文대통령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 협력하라"

국정원·검·경 개혁 전략회의 주제



문재인(사진) 대통령은 21일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어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2월 1

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시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내년 시행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원·검찰·경찰의 조직개편 및 정비 방안도 논의했다. 정일환 기자 whan@

"대기업 임금인상률 작년보다 낮아진다"

10곳 중 8곳 '임단협 원활치 않을 듯'

올해 국내 대기업들의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작년보다 원활치 않으며, 임금인상률은 낮아지는 추세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주요 대기업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이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이 37.5%에 달했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7.5%, '작년보다 원활하

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8월 3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기업은 120개사다. 임금협상을 끝낸 46개사의 임금인상률(호봉승급분을 반영한 기본급 임금인상률)은 평균 1.9%였다. 임금협상을 진행 또는 완료한 86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인상률은 평균 4.4%다. 작년에는 노조 요구안이 6.3%였고 최종 타결된 수치는 3.1%였다. 환경연은 "올해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조 측의 임금인

상 요구안과 최종 타결 수준이 전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54.1%로 '작년보다 개선'(21.7%)의 2.5배에 달했고,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2%였다.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66.7%)△복리후생 확대(58.3%)△성급과급 인상(20.8%)△정년 연장(15.8%) 등이 꼽혔다. 기업들이 노동법안 중 가장 우려하는 분야는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퇴직급여보장법(발의·50.8%)이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한 포기 1만원 '금추'

장마·태풍에 2배 급등...사과·포도도 30% 올라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장만하는 주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 장마와 계속된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뛰어서다. 특히 배추는 소매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기면서 말 그대로 '금(金)추'가 됐다. 21일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배추(고랭지) 1포기 소매가격은 1만1600원을 기록, 1년 전(5485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배추 산지 피해가 커지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롯데마트는 올해 고랭지 배추의 평당 생산수율이 30% 이상 감소해 평년에 평당 수확량이 9포기였던 데 비해 올해는 5~6포기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롯데마트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산지 발굴에 나서 대관령 인근 해발 1100m의 고랭지 채소 단지인 '안반데기'에서 배추 70톤을 확보해 시세보다 30% 저렴한, 포기당 7980원에 판매한다. 서울에서 소고기전문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 그나마 팔던 음식도 할인하고 있는데, 밀반찬으로 나가는 배춧값이 너무 올라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했다. 청과 역시 장마 영향으로 생산량과 출하량이 모두 감소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추석 선물세트나 제수용품을 장만하는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KAMIS에 따르면 사과(홍로, 10개 기준) 소매가격은 18일 기준 3만37원이다. 전년 동기(2만2329원)보다 34.5% 오른 수치다. 포도(거봉, 2kg) 가격 역시 전년(1만3772원)보다 33.8% 오른 1만8440원을 기록했다. 병해충과 낙과 발생 등이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 제수용 과일 중에선 배 가격만 하락했다. 배(신고, 10개 기준) 소매가격은 전년(3만5226원)보다 소폭 떨어진 3만4384원을 기록했다. 생산량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지난해 생산된 저장배 출하량이 늘어난 점이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 쇠고기 가격도 부위별로 전년보다 크게 올랐다. 21일 기준 100g당 가격은 △한우 등심 1만128원 △한우설도 4912원 △한우양지 6200원 △한우안심 1만2931원이다. 부위별로 전년과 비교하면 적게는 8%에서 최대 17%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외에 양배추와 시금치, 파(대파·쪽파) 등 채소와 고춧가루 가격도 전년 대비 일제히 올랐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기업 경영권 위협 비상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재벌 대변할 필요 없어” 강조

재계 “지분매입에 투자 자금 소진”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 반발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공정경제 3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핵심 국정 추진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우리가 너무 재벌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주요 경제 법안 관련 재계 의견

	개정안	경제계 의견
상법 개정안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자회사가 출자도 안 한 모회사 주주로 인해 소송에 휘말리면서 자회사 주주 권리 침해 우려
	감사위원 분리 선임	주주 재산권 침해·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 장악 가능
	3% 의결권 제한	외국계 펀드 등이 지분 분산·규합해 자기 측 인사 감사위원 임명 가능
공정거래법 개정안	지주회사 지분을 규제 강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 회사가 자회사 신규 편입해야 해 비용 30조 원 넘게 발생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계열사 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 경영 효율성 하락
	전속고발권 폐지	경쟁사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고발과 중복 조사 우려
	과징금 상한 상향	최대 6000억 원 과징금 추가 발생 가능
노동조합법 개정안	해고자·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해고자·실업자는 사용자 인사권 영향 없애 노사관계 대립 심화
	비조합원 노조임원 선임 허용	정치적 위상 강화에 집중하며 사회적 혼란 야기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사업장 내 정의를행위 전면 금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우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가장 크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1명의 분리선출이 핵심이다.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현재 방식인데 개정안은 감사위

원 중 1명은 별도 선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 재계가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3% 규정’. 개정안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이 3%를 넘더라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하도록 했다. 재계는 이 조항이 “1원 1표라는 주식회사 기본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에 손해를 끼쳐 모회사에까지 피해를 줄 때,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특정 회사의 주주가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주주대표소송’만 가능하다. 재계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간 연좌제 형태로 모기업의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고 소송 남발로 이어져 경영의 애로를 키운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당정이 만든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입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총수입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를 가진 기업으로 확대돼 삼성생명, SK, 현대글로비스 등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의 전속 고발권 폐지로 앞으로 가격·입찰 등 중대한 담합의 경우 누구나 대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 자체 판단으로 수사도 가능해져 기업 경영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이중 조사로 기업경영 위축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재계는 금융권에 이미 규제가 많은데 별도의 대기업집단을 통해 하는 이중 규제라고 지적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2일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만나 상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상의가 마련한 대안 입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 “정치권, 기업 의견 수렴... 부작용·대안 충분히 논의해야”

“국회 입법 방법·절차 모두 문제
시장경제 원칙서 해결하는 게 우선”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치권에서 기업의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1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을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는 의사 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며 “기업 측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경제 입법을 전부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방법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의

견을 수렴하고 부작용, 대안까지 토론하며 옳은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낡은 채 결과만 갖고 간섭·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며 “될 수 있으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고 설득을 하는데도 ‘마이동풍’ 식으로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 규정 간 상충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 차단 장치, 법 이전에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슈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과 경제계 등 각 주체가 사전에 찬성, 반대를 정하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방법과 절차를 모두 바꿔서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도 소유, 지배구조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에 집중해 법을 만들면 부작용이 생긴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합치점을 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22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제

출했다. 상의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3개월 만에 약 300개에 가까운 기업 부담 법안이 쏟아졌다”며 “경제계는 입법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기업 현장에 미칠 영향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6월 개원 이후 3개월간 기업부담법안 284건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수치다. 이 중에는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이 큰 법안들도 다수 있다.

상의는 여행·면세점·항공·자동차 등 코로나19 피해 산업 지원과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국회가 나서 달라고도 토론했다.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70% 감면 연장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발의·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배리 기자 kimstar1215@

중추가절

올해도 풍요롭고 넉넉한 추석 보내세요.

유한양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번호 : 2019-1498-000901

마음을 담아 가족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베콤씨[®] 정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임대료 강제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업계는 ‘난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 임대료 감면’ 카드를 꺼내들면서 부동산시장에 또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경기도, 임대료 감면 추진= 이 지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임대료를 못 내 빚을 지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중앙정부(국무총리실·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에 발생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손실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 임차인이 지자체 분청조정위원회에 임대료 감면 조정을 신청하면 정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조정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이 지사의 지적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 21일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가 임대료와 관련해 340여 개에 달하는 청원이 쇄도했다.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못하게 된다면 정부의 규제 아래 월세도 감면해줘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건물주들도 함께 부담해 같이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업계선 “주택시장 같은 부작용” 지적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사의 제안은 법조

이 지사 “집합금지 인한 폐업 속출” 정부에 임대료 인하 유권해석 건의

정부 “사적 계약 재정보조 어렵다” 업계 “되레 월세급등 가능성” 반발

계는 물론 상가시장 안팎에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민법 제 537조는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놓고 법리적 판단과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방역을 위해 영업을 강제로 중단한 만큼, 임대료 감면 여지는 있다고 본다. 코로나19가 불가항력적 사유인지 여부와, 계약의무 불이행 상태에서의 임대료가 부당이득인지 등의 판단이 관건으로 꼽힌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은 5%로, 정부나 지자체가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 법과 민법에 명시된 ‘차임증감청구권’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지만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당시 대법원은 “경제위기 이후 손님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해도 임차물에 대한 공과금 부담과 기타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인해 현저히 부담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차임증감청구권을 불인정했다.

이에 정부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상가 임대료를 감면하면 세계 혜택을 주



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공포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 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는 등의 방식으로 건물주들의 ‘착한 임대인’ 동참을 유도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시가 관리하는 상가의 임대료 감면을 중단하고 되레 올린다고 했다가, 상인들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상가업계에선 포퓰리즘에 기반한 설익은 정책 남발이 시장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도 민간의 사적 거래에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고, 자영업

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상가 임대료를 통제하면 법 적용 전까지 임대료가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영세한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차임증감청구권

임대차계약 기간에 전세나 월세 금액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제628조)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 1항)에는 ‘경제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5대 그린바이오 산업 두 배로 10년 후 4.3만명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12.3조 규모 확대 농어촌 빈집 숙박사업 시범 실시

정부가 농어업의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내놴.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 자금 등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 규모와 고용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결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린바이오 육성방안을 통해 마이크로음, 대체식품·메디푸드, 종자, 동물 의약품, 곤충·해양·산림 생명소재를 5대 유망산업으로 선정했다.

5대 유망분야에서는 다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음은 유전체 분석, 포스트바이오틱스, 대체식품은 육류모사, 기능성 신소재, 종자 분야에서는 유전자기위, 디지털 육종, 동물의약품에서는 단백질 재조합, 줄기세포 치료, 생명소재에서는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중장기 연구개발(R&D)을 추진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설과 장비 확충, 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식품, 종자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와 솔루션을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 목표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
(2019년) 4.5조 원 → (2030년) 12.3조 원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고용 규모
(2019년) 2만 명 → (2030년) 4.3만 명

지원하고, 특수대학원 설립과 석사과정 계약학과를 개설해 전문인력을 키운다.

기업의 전주기 지원을 위해서는 그린바이오 인증을 통해 연구, 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연구개발·컨설팅·시제품 생산·시험·평가 등)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곤충 거점단지 등과 같은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을 선정해 산·학·연 및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육성방안을 통해 현재 4조5000억 원 규모인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가 2030년까지 12조3000억 원으로, 산업 고용 규모는 2만 명에서 4만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빈집 숙박 사업은 2년간 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로 실증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을 하려면 마을주민과 협의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매출액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주민 상생방안도 포함했다. 특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증특례를 중지하기로 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2분 1명씩 굿앤굿

대한민국 어린이가 2분에 1명씩 가입하는 보험

최근 3년(2017~2019) 신계약 가입건수 854,776건 기준

230만 어린이를 지키는 이름

현대해상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

현대해상 하이플래너를 만나보세요 ☎1588-5656 / www.hi.co.kr

※ 2019년 12월 기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유지계약 2,321,041건 (2004~2019년 가입)

보험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기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금융상품의 계약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시점부터 최대 100세까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상청취 심의필 제29031호(2020.03.27)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한국 가계부채 4분의 1은 퇴직자... 가계 회복력 약화”

IMF ‘비금융 대차대조표’
“부채,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
절반이 변동금리... 위험성 커
노령화 맞물려 부담 가중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가계부채 중 4분의 1은 퇴직자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 가계의 회복력도 최근 들어 약해지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1일 IMF는 ‘한국, 비금융 대차대조표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취약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며 “저금리 환경, 기업 부문 약화로 가계 대차대조표 취약성이 누적돼 재무 안전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계부채의 약 4분의 1은 퇴직자거나 퇴직이 임박한 가계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가계 회복

력 지수가 이들 부류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IMF는 “특히 퇴직자 가계의 경우 2015년 이후 가계 대차대조표 회복력이 약화했다”며 “이는 가계가 금융 자산을 계속 축적하는 동안 가계신용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IMF는 이런 상황이 인구 노령화와 맞물려 가계부채 위험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가계의 경우 얇은 사회 안전망 속에 스스로 자산을 축적해 은퇴를 보장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과 함

께,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가구가 노령화될 수록 대출 참여도가 반드시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IMF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가계가 차지하는 부채 비중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이는 부채비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부채 탄력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한국 가계부채의 약 50%는 변동금리와 연결돼 있으며, 만기 전액 일괄 상환형(bullet loan) 방식을 띠고 있어 전통적인 할부 대출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게 IMF의 설명이다. 또한 한국 가계 대차대조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며, 가계부채의 30% 이상이 최근 도입된 은행 건전성 한도인 40%를 초과하는 부채상환비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올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신용 상황에는 안정을 주고 있다고 평했다. 동시에 은행 대출 70% 이상이 높은 신용점수를 보유한 가계에 돌아간 부분 등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관세청은 21일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하던 수출액이 이달 들어 20일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늘어나는 등 ‘깜짝’ 반전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 모습. 뉴스시스

9월 수출 3.6% 증가... ‘마이너스 탈출’ 청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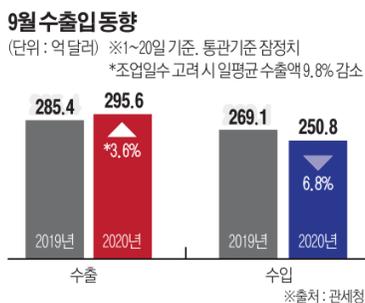
〈1~20일〉

반도체 25.3%·車 38.8% ↑
 일평균 기준으론 9.8% 줄어

한국 수출이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이어진 마이너스 터널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하며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 다만 지난해 9월 이른 추석에 따른 조업일수 차이로 일평균 기준은 9.8% 줄어 반짝 상승세에 그칠 우려도 있다.

관세청은 9월 1~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10억2000만 달러) 증가한 29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조업일수 차이이다. 9월 1~20일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13.5일보다 2일 많아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9.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25.3%), 승용차(38.8%), 정밀기기(14.7%)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무선통신기기(-9.1%), 석유제품(-45.6%), 선박(-26.5%) 등의 수출 품목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18.5%)과 중동(-12.2%)은 감소했지만 중국(8.7%), 미국(16.1%), 베트남(5.8%), 유럽연합(EU·9.6%)은 증가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12.6%), 기계류(6.8%), 승용차(29.5%) 등은 증가했고 원유(-29.2%), 정밀기기(-1.7%), 가스(-39.0%) 등 수입은 줄었다.

중국(2.5%), EU(7.1%), 호주(6.0%) 등을 상대로 한 수입은 증가했지만 미국(-5.3%), 일본(-10.3%), 중동(-40.7%), 베트남(-14.6%)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이달 들어 20일간 44억 7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누적으로는 234억 9100만 달러 흑자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기계·항공제조 中 3000억 금융지원

1.2%P+α 우대금리로 대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계·항공제조 업종 중소·중견 기업을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계·항공제조 금융 지원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열었다.

기계·항공제조 산업은 대다수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주 산업으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상반기부터 시작된 경영난이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기존 물량 소진과 신규 수주 급감으로 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 보증 한도 탓에 현재 시행 중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이용하기 쉽지 않아 보완책이 절실했다.

이에 기계·항공제조업계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대출 신설 △해외보증 확대 △상생협약보증 신설 등 총 3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상생협약대출은 자본재공제조합이 500억 원을 기업은행에 예치하고 기업은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 현재 금리보다 1.2%포인트(P)+α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일반기계, 금속제품, 전기기계 등 기계 업종을 영위하는 자본재공제조합 조합원사이며 기업당 최대 5억 원까지 우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본재공제조합은 현재 운영 중인 해외 보증도 현재 500억 원에서 20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보증은 해외 수주 계약 시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을 말한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60세 이상 공황장애 10년새 5배 늘어

우울 관련 질환자도 증가세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필요”

60세 이상 고령 공황장애 환자가 최근 10년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세 이상에선 14배 이상 급증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노인 우울증 관련 진료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010년 7495명에서 지난해 3만9284명으로 5.2배 늘었다. 이 기간 우울 관련 질환자도 19만5648명에서 30만9749명으로 1.6배 증가했다. 특히 90세 이상에선 공황장애 환자가 22명에서 319명으로 14.5배, 우울 관련 질환자는 1188명에서 4657명으로 3.9배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노인을 65세 이상의 동질성을 지닌 집단으로만 전제하는 정부의 기존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노인 세대 내의 특성을 세분화한 섬세한 복지정책으로 이들에게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

장했다.

다만 진료 현황을 토대로 실제 정신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진료 인원이 느는 데에는 환자 발생뿐 아니라 발골도 주요 배경이어서다. 2017년 도입된 치매국가책임제로 3년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가 2만 명 가까이 증가한 게 대표적인 예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3년 성과’를 보면, 2018년 1월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올해 7월까지 경증 치매 환자 1만 6984명이 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 여기에는 인지지원등급 신설뿐 아니라 장기요양 본인부담률 인하 폭 확대(건보로 하위 0~25%는 50%→60%, 25~50%는 0%→40%), 의료비 부담비율 인하(60%→10%),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 고비용 치매검사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도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환자 수가 늘었을 수 있지만, 이와 별개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의 예방·치료 캠페인 등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매년 진료 인원이 큰 폭의 증가세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추석 전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파손·분실 빈번... 운송장·영수증 등 보관해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전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21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기준 각각 11345건, 512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은 할인된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10월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분야별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택배의 경우 추석 전에는 택배 물량이 증대돼 택배업계의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는 이를 고려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택배 계약 전인 경우에는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급히 보낼 물품이 아니라면 추석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택배사의 운송물 분실, 훼손, 지연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청구에 대비해 택배계약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운송물을 보내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받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하면 운송물 분실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상품권의 경우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박덕흠 “당선 후 오히려 매출 줄어” 의혹 전면부인

“공사 특혜 수주 등 모두 억측”
이해충돌 의혹도 “적법” 주장
與 “제명”...국민의힘 “진상조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

1000억 원 이상 피감기관 공사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은 말 한마디에 공사가 늘고, 관련 상임위 배정으로 공사가 늘고, 간사 선임으로 공사가 늘었다며 억측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017년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K 씨와 임원 50명이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진정했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며 “검찰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제가 진정사건 당사자이거나 고소·고발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장 사업 관련 배임 의혹과 고발’에 대해서 박 의원은 “골프장 투자 권한은 집행기구 수장인 공제조합에 있어, 당시 운영위원장 위치에 있었던 저는 사업 집행

을 제기한 전준호 의원이 당시 서울시장 기획보좌관, 진성준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 시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이면 이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외에도 박 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식 백지신탁 의혹’ 관련해서도 적법성을 주장했으며, ‘국토위 간사 선임 이후 가족 회사 수주액 증가’ 의혹에 대해서도 “당선 후 오히려 매출이 줄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의 해명과 별개로 여당은 ‘박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덕흠 의원은 당사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선 의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촉구 목소리를 반영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에만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해원 실형

이해충돌 사례 살펴보니
윤창현, 삼성 불법승계 관여 의혹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의혹으로 다시 한번 공직자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이해충돌’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거에도 관련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해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국회의원 포함된다는 이유 등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 관련 가장 관심이 쏠린 사건 중 하나는 손해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차명 투기 여부 등의 논란이었다. 최근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일부 인정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속이라는 점도 여야 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켰다. 윤 의원이 2012년부터 의원 당선 직전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 입장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20대 국회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을 맡았다가 여론의 압박으로 사임한 바 있다.

이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처벌 조항까지 둔 이른바 ‘박덕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검찰 조직 획기적 개편할 것”

박지원 “국정원 정치 관여 금지”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가 종료된 뒤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기관별 개혁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쏟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이어 “앞으로 검찰조직과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하여 작동하도록 수사권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부연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북과 해외 정보 수집 기능을 1차장이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은 방첩, 과학정보부서를 3차장 산하로 승격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박 국정원장은 이어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

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 추진과제는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핵심이다. 우선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업무를 전담한다. 이를 위해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경찰을 통솔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의 높아진 책임성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겠다”며 “수사, 생활안전, 교통, 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진 수사 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임기제로,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된다. 국가수사본부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게 됐다.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은 별도 조직을 신설하지 않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실상 함께 업무를 보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 권력과의 유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시·도지사가 아닌 합의회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여한다. 정일환 기자 whan@

민심의 대학, 믿을 수 있는 인재

LIFE사업(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대학

미래는 혼자가 아닌 함께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수시모집

성인학습자전형 /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수능성적, NO!

학생부(교과) 면접만으로 100% 입학가능

탄탄한 장학혜택

전형별 등록금의 30, 50% 지원

맞춤형 수업

주2회, 1+1 (수요일 야간+토요일)

전과/복수전공

미래융합대학 내 모든 학과 가능

미래학습 진로센터운영

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습·진로 상담제공

인터넷접수 | 2020. 9. 25.(금) ~ 9. 28.(월)

지원자격 |

- 성인학습자전형 : 만 30세 이상자
-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재직 중인 자 (군 의무복무경력 재직기간에 포함)

모집인원 |

단과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성인학습자전형	특성화고등졸재직자전형
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인재학부	7	12
	사회복지학과	10	20
	부동산학과	10	20
	법무행정학과	6	16
	심리치료학과	6	24
	미래융합경영학과	3	32
	멀티미디어학과	2	23
계		44	147

명지대학교 미래융합대학 02-300-1572~3, 1563~4 future.mju.ac.kr

“변호사마저 생계 막막”... 美 중산층까지 강타한 코로나

기존 부채에다 일거리도 실종 화이트칼라 대량 실업 경고음

#미국 뉴욕주 로클랜드 카운티에 사는 엘리스 홉킨스와 이안 보웬은 40대 변호사 부부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전 연소득이 17만5000달러(약 2억 원)였다. 부부는 이 돈으로 학자금 대출과 모기지, 자동차 2대 리스,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법원이 폐쇄된 후 일거리가 없어지자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됐다. 모기지를 포함해 월 9000달러의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생계 비조차 막막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초기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건 주로 대면 업종에 종사하던 저임금 노동자(블루칼라)들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젠 고소득층인 화이트칼라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이트칼라 붕괴의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실종과 거액의 부채다. 미국 일자리조사기관인 고용자복지연구소(EBRI)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전 소득이 연간 9만8018달러 이상인 세대는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채(nonhousing debt·비주택부채)가 9만2000달러에 달한다. 이는 2004년에 비해 32% 증가한 것이다. 소득 수준이 5만2655~9만8018달러 사이인 세대의 평균 비주택부채는 같은 기간 33% 오른 3만3378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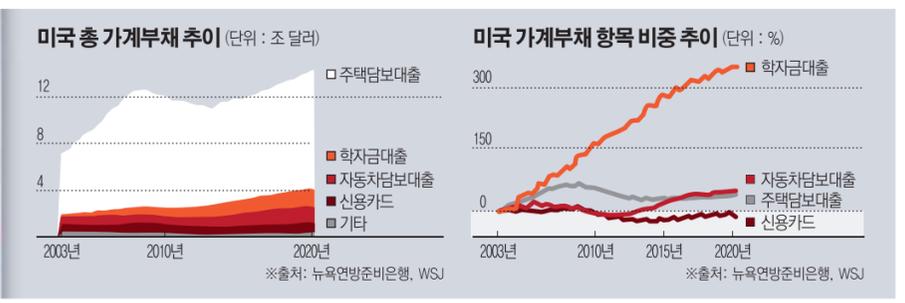
이들 중산층은 부채가 많이 쌓인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고정소득이 사라지며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1700만 명의 소득이 줄었다”며 “950만 명은 급여가 삭감됐고, 750만 명은 근무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앤서니카니발 조지타운대 교육노동연구소 교수 역시 “코로나19는 대학 교육을 받은 중산층 세대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며 “전문직 노동자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률에서도 화이트칼라 집단의 어려움은 두드러진다. 구인·구직사이트인 잡리크루터에 따르면 8월에 연소득이 10만 달러 넘는 구인 게시물은 수는 4월에 비해 19% 감소했다. 미국의 전체 실업률은 코로나19가 극심했던 4월 14.7%까지 치솟았다가 8월 8.4%로 떨어졌지만, 분야별로 편차가 크다. 예술과 디자인, 미디어,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8월 실업률은 12.7%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교육 부문 실업률은 10.2%로 2배 이상 늘었다.

고소득 직종의 실업률도 크게 뛰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세전 소득이 주당 평균 1826달러로 정규직 평균 주급인 1389달러보다 훨씬 높다. 이들의 지난해 실업률은 0.8%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3.7%로 늘었다. 화이트칼라의 위기는 재택근무로 버티던 기업들이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방증이다. WSJ는 코로나19로 인한 화이트칼라의 위기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월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25세 이상 학사 학위를 가진 구직자가 330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계 신용카드회사 디스커버파이낸셜 서비스의 로저 호치필드 CEO는 “지금까지의 경제 위기는 저소득 노동자에게만 국한됐었는데, 화이트칼라의 대량 실업은 이제 시작”이라고 경고했다. 최혜림 기자 rog@



美 사망자 20만 명... ‘트윈데믹’ 공포 확산

〈코로나·독감 동시유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독감까지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보건당국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은 사망자 수가 20만 명에 육박하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올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이 일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USA 투데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 따르면 20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19만942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지구촌 전체 사망자가 95만 9565명이란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이 미국인인 셈이다.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CNN은 존스홉킨스대학 자료를 인용, 지난주

“올 겨울 코로나 확진자 급증엔 내년 초 사망자 41만명 웃돌 것”

미국 31개 주에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최소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 중서부 유타주에서는 18일에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인 1117명을 기록했고, 중북부 위스콘신주에서도 같은 날 253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코로나19 환자 수가 10% 이상 감소한 곳은 델라웨어, 하와이, 루이지애나, 미시간 등 4개 주뿐이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가을에서 겨울까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칠 경우, 비슷한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감과 코로나19는 증상이 비슷해 검사 받기 전에는 구분하기 어려운 데

다 두 질환을 가진 환자가 한꺼번에 입원하면 인적·물적으로 의료 자원에 막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 미국은 이미 작년 겨울에도 독감으로 인해 큰 인명 피해를 봤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지난 독감 시즌에 최소 260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그로 인해 1만4000명이 사망했다.

보스턴 공중보건센터의 줄리아 미어 박사는 USA투데이에 “독감과 코로나19,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것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방역 수칙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1월까지 미국 내 사망자가 41만5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베일 벗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기차 거품논란’ 마침표 찍나

100만 마일 배터리·코발트 프리 관심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둘러싼 ‘거품’ 논란을 잠재울 ‘테슬라 배터리 테크놀로지 데이(이하 배터리 데이)’ 행사가 드디어 막을 올린다.

22일 오후 1시 30분(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 30분) 연례 주주총회 겸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테슬라가 세계 배터리·전기차 업계의 판도를 뒤흔들 혁신적 내용을 공개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테슬라는 국내에서 해외주식을 직접 사는 투자자,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종목이어서 여느 때보다 관심이 뜨겁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밀리언 마일(100만 마일·약 160만 km) 배터리’와 ‘코발트 프리’다. 앞서 스위스 대형은행 UBS는 11일자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수명을 크게 늘리고 단가를 확 낮춘 배터리를 공개할 것으로 예고했다. 배터리 제조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코발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앤 배터리, 이른바 ‘건식 전극(Dry Battery Electrode)’ 등의 신기술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밀리언 마일 배터리는 수명을 160만km 수준으로 크게 늘린 것으로, 2016년부터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에서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 CATL과 공동으로 개발해왔다. 여기서 고가의 희귀금속인 코발트 사용량까지 크게 줄이면 배터리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UBS는 “밀리언 마일 배터리 기술은 향후 3년간 대당 약 2300달러의 비용



절감을 이뤄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기술들이 현실화하면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핵심 부품인 배터리 내구성은 기존 내연기관 엔진 차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전기차 혁명의 본격적인 막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전기차 시대가 예정보다 훨씬 앞당겨지고 있다”며 “그 중심에 테슬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의 밀란 타코르 수석 애널리스트는 “전기차의 에너지 밀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며 전기차 시대의 전환점을 당초 예상한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겼다. 중국 전기차업체 니오(NIO)의 장후이 전무이사는 여기서 더 나아가 “2023년이면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 가격이 같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도 뭄바이 3층 주택 붕괴 인도 뭄바이 교외 비완디시에서 21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3층 건물 잔해에 갇힌 생존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 40분경 비완디시의 주거용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10명 이상이 숨지고 25명 이상이 잔해 속에 갇힌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노후된 건물이 3개월여 동안 이어진 우기를 견디지 못해 무너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완디/AP연합뉴스

‘사기의혹’ 니콜라 창립자 트레버 밀턴 사퇴

‘제2의 테슬라’로 큰 기대를 받았던 미국 수소연료전지·전기트럭 업체 니콜라의 트레버 밀턴(사진) 설립자가 사기 논란 끝에 결국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 최근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등 대기업에서의 투자 유치로 사기 의혹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까지 조사에 나서자 회사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밀턴은 이날 회사 이사회에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사회는 이를 바로 받아들이고, 후임으로 GM 부회장을 지내고 현재 니콜라 이사회 멤버로

있는 스티븐 거스키를 선임했다.

올해로 38세인 밀턴은 유타밸리주립대학을 중퇴한 후 다양한 사업을 하다가 2015년 니콜라를 세우면서 주목을 받았다. 실물로 제작된 차량 한 대 없어서 매출이 전무한 상황임에도 투자자들은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트럭을 내세운 니콜라의 비전만 믿고 열광했다. 니콜라 주가는 올 6월 나스닥에 상장한 후 지금까지 약 231% 뛰었다. 특히 GM과의 제휴를 발표한 이달 초에는 하루에만 40% 넘게 뛰었다.

그러나 미국 공매도 전문 리서치 업체 힌덴버그리서치가 10일 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니콜라와 밀턴의 운명에 먹구름



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힌덴버그는 보고서에서 “니콜라는 수소연료전지차나 전기차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며 “이들이 과거 공개한 시제품과 자료는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년 전 공개한 전기트럭 ‘니콜라원’ 주행 영상은 자체 동력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굴린 것”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SEC는 니콜라에 대해 허위 정보에 의한 주가 조작 혐의로 조사에 나섰고, 이어 법무부도 투자 사기 의혹을 문체삼아 조사에 착수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동서식품

추석의 달을 보며
마음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서로가 더 깊어집니다

맥심과 함께
추석의 행복이
더 깊어집니다

Maxim.
커피라는 행복



원금 회수 못할라... '코리아펀딩' 탄원 나선 투자자들

檢, 주식 담보 확인 위해 압수수색
‘고소 vs 처벌 반대’ 투자자 갈려

“대표 구속 땀 투자금 회수 못해
탄원서·처벌불원서 제출할 것”

P2P(개인 간 거래)금융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제도권 금융 편입되는 과정에서 건전성 문제로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검찰이 P2P 연계 대부업을 지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리아펀딩’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달 31일 기준 누적대출액 업계 8위인 업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3시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은 찾은 투자자들에게 “코리아펀딩이 설정한

최근 3년간 발생한 주요 P2P 사고

단위: 명, 억 원(추산치)

	투자자 수	피해 금액	
헤라펀딩	2000	130	2018년 5월 부도
편두	2800	216	대표 해외 도피
오리펀드	1300	130	대표 잠적 공직 12일 후 경찰 자진 출두
아나리츠	6000	1000	사기 및 횡령으로 임원진 실형 선고
넉펀	2000	251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블루문펀드	4000	570	대표 해외 잠적
팝펀딩	2만3000	380	대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직원들이 1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리아펀딩 사무실에서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장외주식 담보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말했다.(9월 18일자 1면 보도) 이 관계자에 따르면 코리아펀딩은 최근 주식을 담보로 P2P 대출을 실행했으나, 담보 주식을 확인했다는 검찰의 물음에 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코리아펀딩파이낸스대부) 계좌를 아무리 봐도 주식이 입금과 안 돼 있더라”라며 “입고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채

권 등 수사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해동 코리아펀딩 대표는 이투데이에 “검찰에서 사전에 금융 정산으로 계좌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P2P 업체는 담보 대출 상품을 다룰 때 차주의 담보를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를 확보한다. 담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위장해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

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 이날은 코리아펀딩이 원금 및 이자 상환 지연과 관련해 투자자 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한 날이었다. 코리아펀딩은 지난 11일 일부 원금과 이자가 지연되는 상황을 공지하고, 투자자들의 항의에 설명회 개최를 통보했다. 앞서 김 대표는 투자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육을 채우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투자자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코리아펀딩 측은 투자자 설명회 1시간 전에 설명회를 돌연 취소했다. 김 대표는 설명회를 취소한 후 “갑작스러운 압수수색과 혹여나 있을 구속으로 인해 정리하지 못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설명회 취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가 취소되자 투자자들은 곧바로 코리아펀딩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앞에는 40여 명의 투자자가 모였다. 일부는 투자자들은 코리아펀딩을 고소할 계획을 세웠고, 또 다른 투자자들은 이들의 고소 움직임에 반대했다.

투자자 대표는 “남아있는 채권을 원활하

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김 대표 뿐”이라며 “(김 대표가) 설명회가 열리기 전인 일주일 동안 지방 차주 회사들을 방문해 지급 보증서를 받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김 대표가 구속되면 곤란하다”면서 “탄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P2P업체 237곳 중 146곳이 금융당국이 요청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P2P 업체는 91곳이었다. 전체 P2P 업체의 38%다. 금감원이 2차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10일까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집계한 결과다. 금감원은 2차 마감 시한을 지키지 못한 P2P 업체에 대해 ‘P2P 연계 대부업’ 등록의 반납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을 점검한 뒤 문제를 발견하면 해당 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으면 5년간 대부업과 P2P 업체 등록 등이 제한된다. 글·사진=문수빈 기자 bean@

윤종규 회장 ‘ESG 혁신 스타트업 육성’ 가속

언택트·스마트시티·헬스케어 등
‘KB스타터스’ 21곳 추가 선정



윤 회장은 스타트업 육성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4월 직접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 중 플러그 앤드 플레이 본사를 방문해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와 의견을 공유했다. 러그 앤드 플레이는 페이스북, 드롭박스 등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한 업체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가장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찾아 금융 분야 혁신스타트업 투자 방안 및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KB금융은 이번 모집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중인 ESG, 언택트 서비스,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혁신기업을 선정했다.

KB금융은 지난 3월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경영 확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으로 △소셜 임팩트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비플러스’ △기업 ESG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퀀타파이드 이에스지’ △AI 디딤금 기술을 바탕으로 저소득층도 부담없이 가입 가능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크로프로젝트’ 등 ESG 분야 스타트업 3곳을 육성할 계획이다.

선정된 ‘KB스타터스’는 강남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해외 출장시에는 전세계 각지의 위워크(WeWork)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김병근 기자 nova@

부동산 투자, 5000원도 가능합니다

하나銀, 카사코리아와 수익증권 거래 앱 출시

하나은행이 부동산 간접투자 플랫폼 운영사 카사(KASA)코리아와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앱을 출시한다.

하나은행은 KASA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앱이 출시되는 건 국내 최하다. 하나은행과 전략적 제휴를 맺은 KASA는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부동산 간접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다.

두 기업이 손잡고 출시하는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앱 ‘KASA’는 5000원으로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

권 댁스(DABS)를 구매해 상업용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플랫폼이다.

KASA에서 DABS를 구매하면 빌딩의 임대수익 및 향후 매각 시에 보유 지분만큼 처분 수익을 받는 권리를 갖게 된다. 앱을 통해 언제든 이를 사고 팔 수 있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다.

DABS는 다음 달 첫 공모를 시작한다. 종목은 KASA와 제휴한 국내 신탁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 상업용 빌딩을 근거로 발행한 DABS다. 문수빈 기자 bean@

www.douzone.com

DOUZONE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p>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올지타워</p>	<p>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념 플랫폼</p>	<p>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심계량공간 DTEC</p>	<p>전문 컨설팅 그룹이 집중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p>	<p>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p>
-------------------------------------	--------------------------------------	------------------------------------	---	---

두산타워 8000억 매각...2조2000억 정상화 자금 마련



두산중 유동성 확보 8부 능선 부동산 투자업체에 28일 처분 두산건설·인프라코어 매각 변수 입찰 가격·투자자 소송 고민

두산중공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두산그룹의 매각 작업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 두산그룹의 상징인 두산타워(사진) 빌딩을 8000억 원에 매각했다. 앞서 자산·계열사 매각을 통해 확보한 금액을 포함하면 두산그룹은 2조2000억 원의 실탄을 마련했다. 다만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이 예상보다 더뎠고 있다는 점은 두산에 고민으로 남아있다.

두산그룹 지주회사인 ㈜두산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서울시 중구 소재 두산타워 빌딩을 8000억 원에 매각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매수 주체는 부동산전문 투자업체인 마스틴투자운용이다. 빌딩 처분예정 일자는 28일이다.

서울 동대문 패션 시장에 자리한 두산타워는 지하 7층, 지상 34층의 연면적 12만 2630㎡ 규모로, 1998년 준공됐다.

두산중공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두산그룹의 매각작업은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두산그룹은 올해 4월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대가로 3조 원 규모의 자금 마련을 약속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 가장 먼저 골프장인 클럽모우 CC를 지난달 1850억 원에 매

각했다. 이 가운데 입회보증금 반환금을 제외한 1200억 원가량을 채권단에 상환했다.

클럽모우 CC 매각을 시작으로 △네오 플렉스 730억 원 △두산솔루스(6986억 원) △㈜두산 모트론사업부(4530억 원) 등을 팔았다. 계열사, 두산타워 매각 등을 통해 확보한 자산만 약 2조2000억 원이다.

두산그룹은 이 자금을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투입한다.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두산그룹은 설명했다.

위기 극복을 위한 두산그룹의 노력은 여기사 끝이 아니다. 두산건설뿐만 아니라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매각도 추진 중이다.

특히 두산인프라코어는 크레디트스위스를 매각 주관사로 세워 이르면 이달에 예비입찰을 진행한다. 업계에선 현대중공업, 한화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두산건설,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대우산업개발과 이어가던 두산건설 매각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산업개발이 제시한 금액이 두산중공업의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소송에 얽혀있다. 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는 재무적 투자자들과 1조 원에 달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 보행보조 로봇 '젬스힙' 국제 안전표준 획득

국내 개인용 서비스 로봇 최초 고관절 등 걷는 힘 24% 보조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젬스힙(GEMS Hip)'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국제 표준 'ISO 13482' 인증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ISO 13482'는 이동형 도우미 로봇, 신체 보조 로봇, 탑승용 로봇 등 3가지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4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이다.

국내 기업이 'ISO 13482'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문전일 원장, 삼성리서치 로봇센터장 강성철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 'ISO 13482' 인증식을 가졌다.

'젬스'는 로보틱스 기술을 기반으로 보행과 운동 기능을 증진시켜 일상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이다. 세계 최대 IT 전자 박람회 CES 2019에서 처음 공개됐다.

젬스는 사용자 필요에 따라 고관절, 무릎, 발목 등에 착용해 보행에 관여하는 주요 근육의 부하를 덜어 준다. '젬스힙(GEMS Hip)' '젬스니(GEMS Knee)' '젬스앵클(GEMS Ankle)' 등 3가지가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젬스힙'은 고관절에 착용하는 신체 보조 로봇이다. 걸을 때 24% 정도의 힘을 보조해 보행 속도를 14% 높여준다.

개인용 서비스 로봇은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일상 생활에서 사람과 같이 사용

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전자는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대한 안전성과 기술력을 입증했다.

또 젬스힙은 모터가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제어 시스템에 대한 기능 안전 규격인 'ISO 13849'도 함께 인증받았다.

삼성리서치 로봇센터장 강성철 전무는 "이번 인증은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기술과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 능력이 결합돼 로봇 사업화에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차별화된 안전 기술을 다양한 로봇 제품 라인업에 적용해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 전시회 'CES 2020'에서 관람객이 삼성전자 웨어러블 보행 보조 로봇 '젬스힙(GEMS Hip)'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한화정밀기계, 반도체 패키징 핵심장비 국산화

SK하이닉스와 공동 개발

한화정밀기계는 최근 SK하이닉스와 반도체 후공정 핵심 장비인 '다이 본더(Die Bonder)'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다이 본더는 반도체 후공정인 패키징 공정에서 핵심 장비 중 하나다.

한화정밀기계는 다이 본더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정 기술을 적용해 자체 교체 시간을 개선하고 4개 멀티 헤드와 컨트롤

개발 제어로 4.2마이크로미터(μm=100만분의 1미터) 급 고정밀 조립 정도를 유지해 실 생산성을 높였다.

또한, SK 하이닉스에서 개발한 에어 리프트(Air Lift) 타입 픽업 장치를 세계 최초로 적용해 25μm 두께의 반도체 다이를 고속으로 픽업하면서도 제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기존보다 30% 수준으로 낮췄다고 한화정밀기계 측은 강조했다.

한화정밀기계의 다이 본더는 국산화 공로를 인정받아 'IR52 장영실상'도 받았다

다. IR52 장영실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산업 기술상으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 상품화해 산업기술 혁신에 앞장선 국내업체와 연구소의 기술개발 담당자에게 주는 상이다.

이영범 SK하이닉스 PKG장비개발 팀장은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산업 위기감이 높은 상황에서 양사 긴밀한 협력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 성능의 다이 본더 국산화에 성공해 기쁘다"고 전했다.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기아차 해외 매장서 최대 1년간 車 빌려준다

영업점 딜러 기반 '기아모빌리티' 러시아·이탈리아서 시범 시행 내년부터 아시아·중남미 서비스

기아자동차가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 딜러 주도형 모빌리티 서비스 '기아모빌리티(Kia Mobility)'를 시범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아모빌리티는 1일에서 1년 사이의 기간에 딜러가 보유한 차량을 영업망을 거점으로 고객들에게 대여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아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며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고객의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하고 있다. 차량 위생에 대한 우려로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단기 모빌리티 서비스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중장기 점유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기아차가 새롭게 실시하는 이 서비스는 딜러가 모든 차량의 방역과 점검을 직접 시행하고, 영업점에서 차량을 받고 반납한다는 점에서 단기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확산으로 수익원의 다변화가 필요한 딜러와의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기아차는 이번 서비스의 핵심 요소인 차량관리플랫폼을 직접 개발해 딜러에게 제공한다. 딜러는 플랫폼을 통해 차량 관리, 예약관리, 고객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고, 고객은 플랫폼과 연동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위치기반의 차량예약과 결제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통신형 단말기 장착을 통해 원격 차량제어, 실시간 차량관리 등을 실시하고, 차량 위치정보와 운행경로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화된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기아모빌리티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2개국 16개의 거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는 유럽 내 여러 국가를 비롯하여 아프리카·중동·중남미·아시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LG 탈모치료기, 임상서 모발 밀도 22% 증가

LG전자가 탈모 치료용 의료기기 'LG 프라엘 메디헤어' 출시를 앞두고 효능을 입증하는 임상 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LG전자는 최근 대한모발학회(KHRS: Korean Hair Research Society) 학술대회에서 LG 프라엘 메디헤어(모델명 HGN1)를 선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모발학회는 피부과 전문의를 포함, 모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다.

LG전자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에 의뢰해 진행된 임상 시험에서 확인한 LG 프라엘 메디헤어의 효능을 소개, 행사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발표는 임상 시

험의 연구책임자인 허창훈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가 맡았다.

성인 남녀 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시험한 결과에 따르면 LG 프라엘 메디헤어를 사용한 참가자들의 모발은 사용 전과 비교해 1㎝당 밀도는 21.64% 증가했으며, 모발 굵기도 19.46% 두꺼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제품 사용자들은 LG 프라엘 메디헤어를 27분 모드로 주 3회씩 총 16주간 사용했다.

LG 프라엘 메디헤어는 머리에 착용하는 헬멧 형태의 탈모 치료 전용 의료기기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3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다.

이 제품은 '저출력 레이저 치료(Low Level Light Therapy·LLLT)' 방식을 활용한다.

LLLT 방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안드로겐성 탈모증 치료에 도움을 주는 탈모 치료법으로 승인받은 바 있다.

레이저(146개)와 LED(104개)를 포함한 총 250개 광원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모발 뿌리를 둘러싼 모낭 세포의 대사를 활성화해 모발의 성장을 돕는다.

머리카락 밀도가 감소하는 안드로겐성 탈모 진행도 늦춰준다. LG전자는 연내 LG 프라엘 메디헤어 신제품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삼성, 소외계층 돕는 '글로벌 상생' 스타트업 키운다

다민족·여성 위한 스타트업 모집
美 헬스케어 최대 축제에 소개
국내선 C랩 아웃사이드 멘토링

삼성전자가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소외 계층을 돕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창업자가 소외계층인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투자회사 삼성넥스트는 이달 28일까지 미국에서 다민족·여성 등 소외계층이 창업했거나, 이들 소외계층을 위한 기술을 갖춘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모집 중이다.

10개 업체를 선발해 다음 달 12-16일 열리는 미국 헬스케어 업계 최대 이벤트 HLTH 콘퍼런스에서 소개할 계획이다. 올해 3번째인 HLTH는 가상 콘퍼런스로 열린다. 삼성넥스트 측은 "혁신을 위해선 다양성이 중요하다"며 "가장 강력한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다양한 커뮤니티와 사용자, 설립자와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헬스케어는 혜택을 받는 계층과 소외 계층의 격차가 확연한 분야다. 다양한 창업자를 지원해 다민족과 여성 등 소외계층의 의료 차별을 줄이기 위한 삼성전자의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넥스트는 선발된 10개 스타트업에 대해 향후 자금 조달 멘토링 등에 나서는 등 꾸준한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및 전세계에 걸쳐 소외계층 및 사정이 어려운 스타트업을 돕기 위한 행보에 적극적이다. 지난 6월 경북 구미의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6개월간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자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C랩 아웃사이드' 지원을 받은 외부 스타트업 10곳이 투자자들 앞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소개하는 '데모데이'를 가진 것.

올해 졸업식에서는 50대 주부가 이끄는 의약품 통합관리 솔루션 스타트업이 주목을 받았다. 뽕집, 국밥집, 편의점을 거쳐 스타트업 'e블루채널'을 차린 이나현 대표는 "삼성전자의 멘토링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삼성전자 멘토를 만나 기술 분야 멘토링 외에도 조직관리, 사업화 현장 지원 등을 다각도로 도움받았다. 그 결과 e블루채널 거래 약국은 1년 전 10개에서 현재 150개로 15배, 연간 매출은 10배에 달하는 14억 원을 예상하며 크게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장애인에 위한 기술 개발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스마트 시각 보조 안경 '릴루미노 글래스(relumino glasses)'의 전파 인증을 획득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저시력 장애인의 보조 시각을 돕는 릴루미노 앱을 먼저 출시한 바 있다. 릴루미노 개발은 시각장애인들이 집에서 TV 시청과 독서를 할 때 보다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삼성전자 C랩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에 그치지 않고 이를 확대 적용할 하드웨어를 개발해왔다. 앱의 활용도를 VR에서 더 발전된 안경 형태로 넓히면 시각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한층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다.

송영록 기자 syr@

송영록 기자 syr@

송영록 기자 syr@



LS전선, 40% 가벼운 전기차용 알루미늄 전선 양산
LS전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기차용 알루미늄전선 전용 생산 라인을 갖추고 양산을 시작했다. 알루미늄 도체 전선은 기존 구리 전선보다 40% 이상 가벼워, 차량 1대당 총 25kg에 이르는 전선의 무게를 약 15kg으로 줄일 수 있다. 회사 측은 일본 등의 주요 자동차 전장업체들도 알루미늄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추세이며, 알루미늄 전선의 비율이 현재 약 5% 이하에서 2025년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 LS전선

르노삼성, 수익성 중심 경영전략 개편

중장기 전략 '비전 2027' 착수
물량보다 돈 되는 SUV 집중

르노삼성자동차가 모기업 프랑스 르노의 경영전략 개편에 맞춰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2027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전략 수립에 나섰다. 생산 및 판매확대에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전략을 개편하겠다는 전략이다.

21일 르노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장기 전략 '비전 2027(가칭)'을 준비 중이다. 모기업인 르노가 최근 경영 전략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과 일맥상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투자청이 최대 주주인 르노는 지난해까지 글로벌 저성장 쇼크에 휩싸였고, 올해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에 영향을 받아 1분기에만 36억 유로(약 4조9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이후 프랑스 정부로부터 50억 유로(약 6조8800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확보하며 막힌 돈을 가까스로 뚫었다. 정부 대출에 성공한 이후 새 CEO인 루카 드 메오가 선임됐고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에 착수했다.

상반기에만 73억 유로(약 10조 원) 수준의 손실을 낸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신임 CEO는 수익성이 낮은 경차와 소형차를 줄이고 중형급, 나아가

SUV 라인을 확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수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 지원확보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구조조정도 약속했다. 그룹 내에서 1만5000여 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력재정 등도 공언했다. 카를로스 곤과 함께 글로벌 차 업계에서 대표적인 '코스트 킬러(원가절감 주도 인물)'로 알려진 신임 CEO는 독일 폭스바겐 그룹 출신이다.

이런 모기업 르노의 경영전략 재편에 맞춰 르노삼성 역시 체질 강화 및 사업전략 수정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르노삼성의 역할론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르노삼성은 르노가 메르세데스-벤츠와 제품 공동개발 및 파워트레인 공유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할론을 확대한 바 있다. 르노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중형차와 준대형차 개발 경험을 지닌 데다, 르노 자회사가 운데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 르노 그룹이 소형차 대신 수익성이 큰 중형차와 SUV 등에 집중한다면 르노삼성이 개발과정에서 뚜렷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우리(르노삼성)도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제품전략을 수정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최태원 SK 회장 장남, SK E&S 사원으로 입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남인 최인근(25·사진) 씨가 SK E&S 전략기획팀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씨는 SK E&S 수시 채용 전형으로 입사해 이날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최 씨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사원급 처우를 받게 된다.

최 씨는 2014년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해 물리학을 전공했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인턴십 과정도 참여했다.

SK E&S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 저장시스템(ESS), 가상발전소(VPP) 등의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진행하는 SK 그룹의 에너지 계열사다.



이에따라반도체와 바이오, 에너지 등 그룹의 주력 사업군에서 SK그룹의 3세 경영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최 회장의 장녀 최윤정(31) 씨는 SK바이오팜에 책임 매니저로 입사해 지난해 휴직 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바이오인포메틱스(생명정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차녀 최민정(29) 씨도 작년 SK하이닉스에 대리급으로 입사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건강한 일상이 소중한 요즘,
홍삼의 힘을 선물하세요
바이탈뷰티 명작수

그 어느 때보다도 면역력 관리가 중요해진 요즘입니다. 인삼의 뿌리와 열매*를 모두 담은 홍삼 앰플 명작수-오늘부터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한 매일을 지켜주세요.
*인삼 열매는 부원료입니다

바이탈뷰티 명작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바이탈뷰티

KT&G와 함께 세상을 질주할

질공은 당신입니다

글로벌 TOP4를 향해 더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KT&G
더 큰 세상으로 함께 달려갈 도전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GLOBAL TOP 4

2020년 KT&G 신입 경력사원 모집

채용 홈페이지 ktng.recruiter.co.kr

신입사원 접수기간 9/22 ~ 10/13
경력사원 접수기간 9/15 ~ 10/6

상상을 나누다

KT&G



“구글 인앱 30% 수수료 부과면 영세 게임업체 적자 허덕일 것”

스타트업 규제개혁 토론회

#국내 영세 게임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약 5억2600만 원이다. 꾸준한 성장을 위해 신입 직원은 1.8명, 경력 직원은 2.4명을 충원해야 한다. 연구개발에도 약 5000만 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가 부과된다면 꿈쩍 없이 매출액 중 1억6000만 원이 증발하고 만다.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종업원 급여(인건비)·연구개발비만으로 매출액의 73.8%를 지출, 적자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태희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은 21일 개최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 행사에서 위와 같이 분석하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가 게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공동 주관,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에 부과하려는 30% 수수료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모인 관계자들은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이태희 대학원장은 매출액을 공시하고 있는 상장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분석, 국내 모바일 게임시장의 규모를 약 4조9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구글 인앱 수수료로 약 1조60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바일게임 매출 비중 커질수록 부담도 늘어... 인건비 최대 8배 “규제당국, 분명한 견해 밝혀야”

또한, 모바일게임 매출 비중이 커질수록 지급해야 하는 인앱 수수료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지며, 심한 경우 종업원 급여(인건비)의 약 8배를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지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인식조사도 진행됐다. 연구를 맡은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관련 사업자 60곳에 설문조사를 타진했는데 불이익을 당할까 무섭다고 48곳이 거절했다. 결국 12곳 담당자들과만 전화 인터뷰를 했다”며 “이와 같은 상황들이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드러낸다”고 말했다.

정 교수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인터뷰 결과 업계 관계자들은 구글 인앱 수수료 부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수 없고(‘혁신 저해’), 영업이익 손해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며(‘사업자 수익 타격’),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소비자 후생 감소’)이라 우려하고 있었다. 구글 앱 사용자들 또한 향후 국내 기업에 구글이 추가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것 같다는 질문에 67.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발표 이후 구글이 부과하는 과도한 인앱 수수료를 막을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중재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이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약관규제법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를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대표이사도 “규제 당국이 구글의 인앱 수수료 부과가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인을 시장이 주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위 등 규제 당국이 분명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 디지털산업제도과 과장과 진성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참석, 관계 부처들과 구글 인앱 결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최한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현재 구글이 인앱 결제 30% 수수료 부과 방침을 정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사후 규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콘퍼런스에서 나온 정략적,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gogumee@



청량리 전통시장 화재현장 찾은 조봉환 이사장 21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추석 상품을 쌓아 둔 점포와 창고 등 20곳이 소실됐다. 조봉환(왼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이날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한 후 동영화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상파 ‘꼼수광고’ 5년새 43배 급증

프로그램 쪼개서 중간광고 삽입 최근 5년간 2919억 벌어들여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서 중간 광고를 하는 지상파의 편법이 급증하면서 시청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21일 조명희 의원(국민의힘·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중간 광고인 지상파 프리미엄광고(PCM) 프로그램 수가 2016년 2개에서 2020년 86개로 5년 사이 무려 4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중간광고 삽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지상파들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분리편성해 유사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 편성된 PCM 프로그램 수는 KBS 19개, MBC 25개, SBS 31개, EBS 11개다.

통상 PCM 단가는 일반광고보다 1.5~2

배 높으며, 지상파 4사는 PCM으로 2019년 1061억 원, 2020년 상반기 680억 원 등 최근 5년간 2919억 원에 달하는 광고수익을 올렸다.

조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비싼 광고단가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노리고 애플 TV 간판 예능, 드라마를 쪼개서 편성하고 있다”며 “방송위는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편법을 조장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SBS는 2부도 모자라 3부로 분리 편성하고, MBC, SBS는 메인뉴스까지 PCM을 도입하는 등 시청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 EBS까지 PCM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은 이중으로 수신료를 챙겨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버리는 행위”라며 “KBS는 손쉬운 방법으로 적자를 메우려 하지 말고 방만경영 쇄신, 콘텐츠 재건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공적책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훈 기자 yes@

이통사, 헬스케어 시장 선점 ‘젠걸음’

SKT, 맞춤형 건강 코칭 서비스 KT ‘GEPP’ 카자흐스탄 진출 LG U+ ‘실버 솔루션’ 추진 중



SKT 모델이 케어에이트 디엔에이(Care8 DNA) 검사 패키지를 소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이 주목받으면서 통신사들의 관련 사업에 빠른 속도로 참여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 환경 증가에 따른 헬스케어 부문과 통신 인프라와의 접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SK텔레콤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 기업 인바이츠헬스케어와 정밀 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 등 3사 합동으로 소비자 직접의뢰(DTC) 유전자 검사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 코칭 서비스 ‘케어에이트 디엔에이(Care8 DNA)’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SK텔레콤의 ICT 플랫폼 역량, 인바이츠헬스케어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역량,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 기술 역량을 모아 개발했다. 케어에이트 디엔에이는 △유전자 검사 △코칭 상담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고객은 집으로 배송된 검사 키트에 검체(침)를 채취해 보내면, 약 2

주 후 전용 앱을 통해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건강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날 KT도 ‘글로벌 감염병 대응 플랫폼(GEPP)’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을 공개했다. KT와 메디컬파트너스코리아(MPK)는 카자흐스탄을 전초기지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KT의 ICT 역량을 활용한 K방역 확산에 나설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3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기업 세이프티랩, 헬스케어 기기 기업 다우코리아와 ‘플라즈마 공기 살균기 활용한 헬스케어 시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요양 시설 등 노인 관련 시설의 기기를 관리하는 ‘실버 헬스케어’ 솔루션 구축을 추진 중이다.

김우람 기자 hura@

카카오, 음성인식 컨트롤러 ‘미니링크’ 출시

AI 플랫폼 ‘카카오 i’ 탑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i’를 탑재한 음성 인식 컨트롤러 ‘미니링크(사진)’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미니링크는 스마트 스피커 ‘카카오미니’의 기능과 강점을 블루투스 스피커, 차량 등 다른 기기와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담았다. 이용자들에게 인기 있는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과 ‘니니즈’ 캐릭터 ‘조르디’ 케이스 및 스트랩도 같이 출시했다.

미니링크는 한 손에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휴대용 카카오미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과 보내기가 가능하고 원하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추천받을 수 있다. 뉴스, 환율, 주가, 운세 등의 지식·생활 정보뿐 아니라 알람·메모 등록, 배달음식 주문, 교통·길 찾기 정보, 여학 사전, 영화·TV 정보도 이용 가능하다. 블루투스 스피커나 차량 등 외부 기기를 카카오미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미니링크를 차량이나 블루투스 스피커 등 외부 기기와 연결하면 미니링크의 다양한 오디오 콘텐츠를 외부 기기로 들을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관계자는 “미니링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카카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카카오미니, 카카오미니 C’에 이어 ‘미니링크’까지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 지속해서 디바이스를 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추석 연휴 스미싱·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택배배송 확인문자 등 사칭 주의 인터넷진흥원, 24시간 모니터링 이통3사도 ‘피해예방 문자’ 발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1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택배 배송 확인,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 및 결제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를 포함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올해 8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8% 증가했으며(18만 5369건→70만783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도 등장(1만753)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예방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스미싱 정보공유 등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하여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 3사(SKT, KT, LGU+)와 협력하여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녀 사칭 및 허위 결제문자 스미싱 피해 증가에 대비해 부모님들은 반드시 직접 확인 후 대응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 사칭 스미싱 문자에 속지 않도록 미리 전화로 알려드릴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자녀가 문자를 발송한 것이 맞는지 직접 통화해서 확인, 카드사에 직접 결제 내역을 확인할 것을 안내했다.

경찰청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사이버범죄 예방 앱인 ‘사이버갑’을 통해 피해 예방 수칙과 피해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재훈 기자 yes@

맛있는 애 × 맛있는 애... 식품업계 '크로스오버' 마케팅

스쿨푸드, 삼양식품 손잡고
불닭소스 활용 떡볶이 내놔
설빙, 시그니처 인절미 빙수
푸르밀과 라떼로 만들어
검증된 맛 메뉴 재해석 '재미'



스쿨푸드와 삼양식품이 손잡고 만든 '불닭소스' 활용 신메뉴 2종(위). 설빙과 푸르밀 협업으로 탄생한 '인절미라떼', '흑임자라떼'.

유명 식당의 메뉴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 구입하고 인기 식품을 식당에서 즐기는 시대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식품과 메뉴를 재해석하는 크로스오버 마케팅이 식품·외식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는 새로운 메뉴나 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선보이는 사례가 속속 늘고 있다.

에스에프이노베이션의 프리미엄 분식 브랜드 '스쿨푸드'는 삼양식품과 손잡고 '불닭소스'를 활용한 신메뉴 2종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삼양 불닭소스 특유의 중독성 강한 매운맛과 스쿨푸드 메뉴의 조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신메뉴 2종은 '불닭 모짜렐라 스파게탄마리'와 '불닭 까르보나라 파스타 떡볶이'다. 스쿨푸드 최고 인기 메뉴인 '모짜렐라 스파게탄 마리'와 '까르보나라 파스타 떡볶이'에 삼양식품의 불닭소스를 더해 각각 '불닭 모짜렐라 스파게탄마리', '불닭 까르보나라 파스타 떡볶이'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번 협업을 기념해 스쿨푸드에서 불닭 메뉴를 주문하면 삼양식품의 핵불닭소스 30g을 추가 증정한다.

코리안 디저트 카페 '설빙'은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과 손잡고 '인절미라떼', '흑

임자라떼' 2종을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 선보였다.

인절미라떼와 흑임자라떼는 설빙 시그니처 소재인 인절미, 흑임자를 활용해 고소함과 달달함을 한번에 느낄 수 있는 액상 컵 음료다. 담백한 인절미 콩가루와 흑임자 페이스트로 풍성한 곡물 맛을 살렸고, 부드러운 우유와의 조화로 자연스럽게 건강한 맛을 구현했다. 기존 '인절미설빙', '인절미 토스트', '흑임자찰떡설빙'을 즐겨 찾던 소비자의 취향을 저격한 제품이다.

설빙은 6월부터 세븐일레븐과의 콜라보를 통해 '인절미', '인절미롤케익', '인절미 크림단팻빵', '인절미떡빵', '인절미스낵' 등 전통 식재료인 인절미를 활용한 디저트

를 선보이기도 했다.

맛집 메뉴를 배달 받거나 유통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SSG닷컴은 일식 도시락 전문점 '요이벤', 베트남 음식 전문점 '하노이의 아침', 미국 남부 가정식 전문점 '사이바나'의 밀키트를 새벽배송 상품으로 선보였다.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한촌설렁탕', '육수당 수육국밥', '정다울 해물볶음짬뽕' 등도 SSG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는 지난 4월 유명 맛집과 손잡고 안방에서도 손쉽게 유명 맛집의 미식 체험이 가능한 '피코크 고수의 맛집밀키트' 신상품 내놔다.

이마트가 이달 선보인 고수의 맛집 밀키트는 의정부 오댕식당과 협업한 '피코크 오댕식당 부대찌개'를 비롯해 '피코크 시추안하우스 마라소고기전골', '피코크유노추보 차돌우동' 3종이다. 앞서 이마트는 딸부자네 불백, 맛이차이나 짜장면, 초마짬뽕 등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뚜기는 지역 대표 요리를 가정간편식(HMR)으로 재해석했다. 오뚜기가 선보인 지역식 국탕찌개 신제품은 △의정부식 부대찌개 △서울식 설렁탕 △종로식 도가니탕 △안동식 쇠고기국밥 △수원식 우거지 갈비탕 △남도식 한우 미역국 등 6종으로 구성됐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간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맛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식품·외식업계의 협력이 진화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검증된 식품이나 메뉴를 재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초기 시장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현대백, 추석 행사장 '방역 패트롤' 운영

전담직원 배치... 30분마다 소독

현대백화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매장 내 위생 및 방역 강화를 위해 30일까지 압구정본점 등 전국 15개 전 점포에서 '방역 패트롤' 제도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고객 간 접촉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선물세트 특설행사장에 방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30분 단위로 대기 공간과 접수데스크, 선물세트 진열대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각 점포별로 안전 요원과 직원 등 40~50명이 매장을 순회하며 고객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독려하고, 분실·오염 등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마스크도 지급하고 있다.

각 점포별 특설행사장에 별도의 입구와 출구를 두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과다하게 밀집되지 않도록 전담 직원이 상시 관리하고, 고객들이 선물 접수를 의뢰하는 접수데스크는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LIVE

쿠팡도 출사표... '라방'에 빠진 유통공룡들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 경력자 채용
롯데·현대·신세계 이어 도전
매출 부진속 새 활로로 떠올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매출 부진을 겪고 있던 유통업계가 라이브 방송(라방)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롯데와 현대백화점 등이 라방에 속속 참전하는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에 이어 쿠팡도 출사표를 던진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라이브 커머스 경력자 대규모 채용'에 나섰다. 담당 직원은 △라이브 파트너 제휴 및 영업 경력자와 △셀렉션 담당자다.

먼저 라이브 파트너 제휴 및 영업 경력자의 담당 업무는 콘텐츠를 만들고 게시할 파트너를 발굴 및 유치다. 해당 업무는 △인플루언서와 유명인, 공급사/판매사 및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 발굴 △크리에이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인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 등이다.

지원 자격은 파트너 관리 경험 혹은 디지털 및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근무 경력을 5년 이상 보유하신 자로 커머스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라이브 스트리밍과 영상 제작

경험을 보유한 이와 크리에이터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일한 경험을 보유한 경력자다.

셀렉션 담당자는 라이브 쇼핑의 상품 셀렉션을 확대하고 등록하는 직원으로 △쿠팡 내부의 BM(MD) 뿐만 아니라 공급사/판매사 및 외부 인력들과 협력해 라이브 커머스 서비스를 위한 셀렉션 구매 △상품 파악 및 매입부터 물류센터 입고까지 새로운 셀렉션 등록 과정의 모든 프로세스를 관리 △셀렉션 소싱을 위한 브랜드와 판매사들과의 협상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자격 요건은 △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디지털 및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근무 경력을 5년 이상 보유자 △공급사나 판매사에서 머천다이징 또는 비즈니스 개발 경험을 5년 이상 보유자 등이다.

쿠팡이 라방 인력 모집에 나서면서 이에 따라 주요유통 공룡들이 모두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게 됐다. 홈쇼핑이나 이커머스가 주로 시도하던 라방에 유통공룡이 처음으로 뛰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100LIVE'로 방송에 나선 롯데백화점이다.

코로나19 쇼크가 한창인 지난 4월 네이버와 협업한 롯데이마켓 파주점의 '아디다스 창고 털기' 방송이 시청부 4만6000명으로 네이버 라이브 방송 최다뷰를 기록하자 롯데는 아예 올 상반기

기 사내에 비디오 커머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TF팀 '브이커무'를 조직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백화점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백화점 매출이 수직낙하한 지난 3월 '그립'과 손잡고 라이브커머스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현대아웃렛도 그립 모바일을 통해 자사 제품 판매에 나섰다.

이어 라이브 방송에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신세계도 화장품 편집샵 시코르 라이브방송으로 도전장을 냈다. 17일 오후 8시 모뎀 이선진을 앞세워 '시코르 대표 베스트 제품'으로 10분 안에 메이크업 완성'을 방송했고, 22일에는 뷰티 전문가 김지원이 출연해 스틸라, 수아도르, 시코르 메이크업 컬렉션 등 총 7개 제품으로 연출하는 포인트 메이크업 방송에 나선다.

자제 백화점 채널이 아닌 시코르 브랜드 사업에서 추진하는 방송이지만, 지난 4월 인수한 영상 콘텐츠 제작·스트리밍 업체인 마인드마크로 그룹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은 아직 파이는 작지만 성장세는 높은 매력적인 분야"라면서도 "대세로 떠오르면서 인기 인플루언서와 연예인 등이 방송을 진행하며 높아진 비용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봤다.

남주현 기자 jooh@

'언택트 추석'에 간편식 구매 늘었다

G마켓, 작년 추석보다 40% ↑
홈플러스 온라인몰 159% 급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산 우려에 추석 귀성을 포기한 소비자가 늘면서 차례상을 마련할 신선식품보다 가정 내에서 간단하게 식사 대응으로 먹을 수 있는 간편식 구매가 늘고 있다.

21일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이 추석을 앞둔 최근 한 주(9월 11~17일) 동안 가공식품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전년 추석(2019년 8월 24~30일) 동기 대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카테고리로는 간편하게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가정간편식(HMR) 판매량(50%)이다. 즉석볶음요리(110%)와 찌개·찜(113%)은 각각 2배, 즉석국은 63% 신장했다. 전자레인지 조리가 가능한 컵밥은 91%, 전주식량은 32%, 즉석밥은 25% 늘었다.

간식과 흡수용 안주류도 수요가 많다. 도나츠(344%), 베이글(209%), 간식용 소시지(305%), 스낵(51%) 등 베이커리·과자 판매량이 크게 올랐고, 양이 많은 대용량 과자 역시 긴 연휴 기간을 달래 줄 식품으로 138% 판매 신장했다.

대형마트 역시 마찬가지로.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냉장간편식의 온라인몰 판매량이 전월 동기 대비는 83%,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9% 증가했다. 올해 추석 귀성을 포기하면서 연휴 동안 길 먹거리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명절 가족 먹거리 수요를 잡기 위해 유통업체들도 간편식 프로모션에 돌입하며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프리미엄 자체브랜드(PB) '홈플러스 시그니처'의 간편식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시그니처 간편식 기획전'을 다음달 1일까지 진행한다. 대상 품목은 홈플러스 시그니처의 상품 약 50종으로 2개 이상 구매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은 27일까지 '2020 한가위 빅세일'을 열고 가공식품을 비롯한 명절 주요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판매한다.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 할인쿠폰을 매일 제공한다.

편의점 CU는 명절 음식 6종을 추석 기간 한정 판매한다. 대표 상품인 '명품한가위정식'과 '한가위밤약밥', '궁중불고기' 등이다.〈사진〉 세븐일레븐은 9월 한 달간 '차돌강된장보리밥' 등 오뚜기 인기 가공요리 7종에 대해서도 '카카오페이(머니)'로 결제 시 50% 페이백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매주 월요일 '트리플크림파스타' 등 프레스지의 인기 밀키트 3종에 대해 50% 할인판매한다. 남주현 기자 jooh@

대주주 요건 '10억→3억'... 개미, 연말 '매도 폭탄'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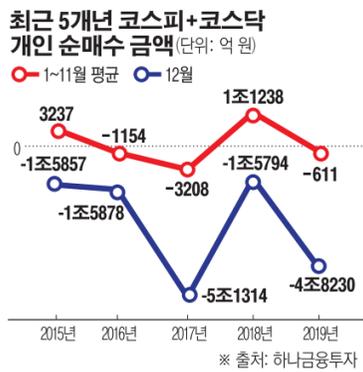
연말시즌 양도세 회피 위한 개인 투자자 투매 이어져
대주주 기준 강화 때마다 순매도 금액 3배 넘게 급증
올 투매 역대 최대 전망... "대주주 양도세 폐지" 목소리

한국증시의 '큰손'이 된 개인투자자들이 올 연말 매도 폭탄을 던질 것이라는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매년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들의 투매가 연말에 이어지고 있지만, 대주주 요건이 내년부터 크게 강화됨에 따라 매도 규모가 예년보다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연초부터 18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646억 원, 코스닥시장에서 12억 6362억 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내던지는 상황에서도 개인들이

부지런히 사 모아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그러나 매년 연말은 대주주 주식 매도차익 양도세 과세를 피하려고 개인들이 주식 매도하는 시기다. 최근 5개년 동안 개인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합산 12월 평균 순매도 금액은 2조9000억 원으로, 5개년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1~11월 개인은 평균 1900억 원 순매수 금액과 비교할 때, 12월에는 매도세가 집중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7년과 지난해에는 대주주 기준이 각각 25억→15억 원, 15억→10억 원으로 내려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



도 금액이 예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내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대주주 판정 기준은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했다면 내년 4월부터

실현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3억 원은 본인뿐 아니라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조정폭이 크기 때문에 역대 최대의 개인 물량이 출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경수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총 56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상황에서 연말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환매 전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개인들의 매수 일변도였던 시기에 나타났던 과열 종목(주도주)의 추가 상승 등의 움직임이 연말 환매 시기에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빚투'한 개인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도 이어질 수 있다. 김승한 유휴증권 연구원은 "연말로 가면서 양도세 회피 매물의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신용유지잔고 수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용거래자 잔고가 사상 최고 수준인 17조 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연말 개인들의 매도 폭탄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들이 빚을 내 산 주식들이 반대매매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주주 양도세 폐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의 글에는 이날 기준 4만8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폐납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공모가로 본 BTS... 1인당 몸값 5200억

빅히트 공모가 밴드 최상단 팬
시가총액 4조5692억 달해
BTS 시장가치는 3조6500억



기업공개(IPO) 시장의 '대어'로 평가받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청약이 다가오면서 소속된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시장가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빅히트는 오는 24~25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 조사를 한 뒤 내달 5~6일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공모 예정가는 10만5000원~13만 5000원이다. 공모 예정가 최상단을 기준으로 하면 상장 후 빅히트의 시가총액은 4조5692억 원에 이른다.

빅히트는 증권신고서에서 전체 연결 매출에서 "BTS의 매출액 비중이 2020년 상반기 및 2019년에 각각 87.7%, 97.4%를 차지하는 등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연결매출에 플레디스엔터

테인먼트 매출은 지난 6월 한 달 매출만 반영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연결기준) 2940억 원 중 2579억 원이 BTS 매출액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플레디스 연간 매출은 805억 원으로 빅히트 연결매출(5872억 원) 대비 13.7%였다.

플레디스의 매출 비중을 고려해도 빅히트 연결매출에서 BTS 매출 비중은 80%를 넘어선다. 빅히트의 시장가치인 시가총액이 4조5692억 원이 된다면 BTS의 시장가치는 3조6500억 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BTS 멤버 1인당 52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상장 이후 주가가 최상단 공모가를 웃도는 수준에서 자리 잡으면 BTS 1인

당 시장가치도 더 올라간다.

단순 비교는 어렵다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와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바르셀로나 구단은 메시의 시장가치로 여겨지는 이적료로 7억 유로(약 9832억 원)를 매겨놓은 상태다.

하이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빅히트가 지난 1년간 플레디스와 쏘스뮤직을 인수해 한솔밥을 먹은 세븐틴, 뉴이스트, 여자친구 덕분에 BTS 매출 비중은 87.7%까지 낮아졌다"면서 "신규 아티스트 데뷔로 아티스트 포트폴리오는 다각화될 것"이라며 적정 시가총액을 7조 2745억 원으로 평가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올 2600% 오른 신풍제약 코데즈컴바인 전철 밟나?

실적 뒷걸음치는데 주가는 급등
'투자위험 종목' 지정·해제 반복
증권사도 목표주가 내놓지 못해



'수익률 킹'에 오른 신풍제약이 코데즈컴바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16년 코데즈컴바인은 FTSE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몰려 8일 만에 주가가 550% 급등했지만, 지수 편입에서 제외되자 주가가 급락해 뒤늦게 올라온 개미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이날 시가 총액 10조 원을 찍었다. 국내 3대 제약사인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이 회사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무려 2634.80%가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이상 급등하는데 우려를 보인다. 시가총액은 급격하게 올랐지만, 실적은 지속해서 줄고 있다. 2017년 90억 원에서 2018년 69억 원, 2019년 19억 원으로 2년 만에 78% 하락했다. 올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45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26억 원) 대비 반짝 상승했지만 많이 늘어난 만큼 요건은 없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신풍제약은 지난 5월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진행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6월부터 본격적

으로 급등했다. 7월 13일에는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IC) 한국 스탠더드 지수에 편입되면서 주가가 더욱 치솟았다.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이어졌다.

무엇한 이유 없이 주가가 치솟자 한국거래소는 신풍제약을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 해제를 반복하면서 투자 경고를 알렸지만, 투자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급등은 FTSE 지수 편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1일 FTSE 지수 반기 리뷰가 발표됐는데 신풍제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증권가에는 신풍제약에 대한 경고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묻지마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신풍제약의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주가 등을 제시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해 올해 추정 실적 등을 내놓을 수 없는 만큼 투자자들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역대 최대 '빚투'... 유동성 공급 제동 걸릴까

직장인 C씨(35)는 지난 3월 폭락장 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 당시 현대자동차 등 네 개 종목을 1000만 원에 사들였다. C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여섯 달 새 2100만 원까지 불어났다. 자신감이 붙었다. 8월 말 빚을 얻어 투자금액을 3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코스피는 물론 장외 시장으로 사냥터를 넓혔다. 그는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다 쓰고, 증권사에서도 돈을 빌렸다"며 "부동산 투자는 '종자돈'이 많이 들어 엄두도 못 낸다. 주식 투자에 '올인' (다걸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빚투' (빚내서 투자) 열기가 뜨겁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신용거래자 잔고는 17조902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 3월 6조 원 규모까지 떨어졌다가 6개월 만에 세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빚을 내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증권사들도 신용공여 한도 조절에 나

신용거래용자 잔고 18兆 육박
6개월 만에 3배 가까이 급증
증권사들 신용공여 한도 조절

서고 있다. 증권사별로 신용공여 한도는 다르지만, 대출 수요가 크게 늘면서 법적 관리수준까지 한도가 찾기는 때문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용공여를 할 때는 신용공여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NH투자증권은 신용공여 한도가 소진돼 이날부터 신용유자 신규매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7월에는 미래에셋대우 등 다수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중단한 바 있다. 이달 1일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신규 계약증권 담보대출과 신용유자를 일시 중단했다가 14일 다시 거래를 재개했다. 한국투자증권도 지난 11일 신용유자

신규 약정 일시 중단했다. 이에 개인투자자 이용도가 높은 주식투자 전문 커뮤니티에서는 아직 신용공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리스트나 이용조건, 마이너스 통장 금리 등이 '꿀팁'으로 묶여 공유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시 이외에 돈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유동성 규제가 없다면, 계속 주식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는 '동학개미'의 방향성인데, 최근 신용비율이 높은 종목을 보면 다시 테마주로 몰리고 있어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4일 금융감독원과 시중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제한을 논의하면서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유동성 공급에 빚장이 걸릴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패니 바잉(공황 구매)'과 주식시장 '빚투'의 원인으로 신용대출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이인아 기자 ljh@

빗뽀 지수 (2020년 9월 21일 17:00, KST)

전일 대비	-106,000원 (0.8%▼)	6개월 대비	4,186,677원 (49.3%▲)
-------	-------------------	--------	---------------------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61,900	-7,000 (2.6%▼)
리플	285	-7 (2.4%▼)
라이트코인	54,600	-1,600 (2.8%▼)
대시	82,750	-1,100 (1.3%▼)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이오스	3,105	-33 (1.1%▼)
비트코인골드	9,510	-145 (1.5%▼)
이더리움클래식	7,000	-150 (2.1%▼)
퀀텀	2,930	-72 (2.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KB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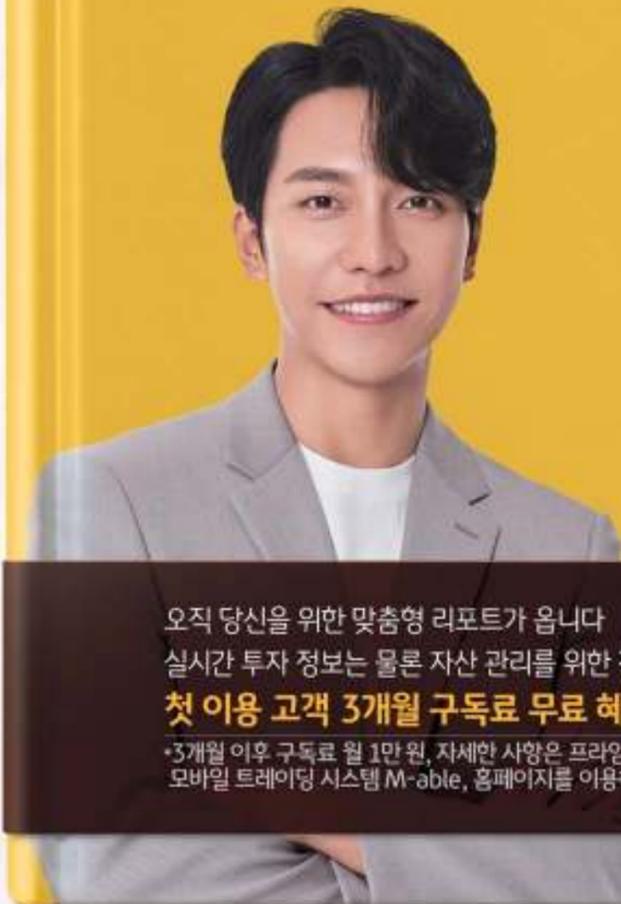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업 계 최 초 맞 춤 형 구 독 서 비 스

월 1만 원으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는 법

“ 친구도, 유튜브도, 찌라시도 따라가지 마라! ”



소액 투자자를 위한 업계 최초의
맞춤형 구독 서비스

KB증권 프라임클럽 오픈

오직 당신을 위한 맞춤형 리포트가 옵니다
실시간 투자 정보는 물론 자산 관리를 위한 전문 PB 상담까지
첫 이용 고객 3개월 구독료 무료 혜택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이후 구독료 월 1만원, 자세한 사항은 프라임 센터(1566-0055),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able,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1791호(2020년 4월 20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HTS, 홈페이지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0.1273%+2,000원 / 모바일 0.1973% 일률적용 합니다.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은행연계/비대면계좌) HTS, 홈페이지 0.015%/모바일 0.12% 일률적용 합니다. *매체별, 금액별 수수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투자성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심의결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군지 몸값 더 오르나”...중학교 ‘학군 개편’ 논란

서울시교육청, 고교처럼 ‘先지원 後추첨’ 검토

명문 학교·학원가 주변 선호 부추겨 부동산시장 불안 고조 우려
강남 선호도 높아질 것...“교육 형평성 제고·부동산 안정” 의견도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방식으로 학교 지원제로 바꾸려 한다. 지원제에서 밀리면 자녀가 원치않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다는 ‘맹모(孟母)’들의 우려가 크다. 도입 취지와 달리 명문중·고나 학원 주변 집값만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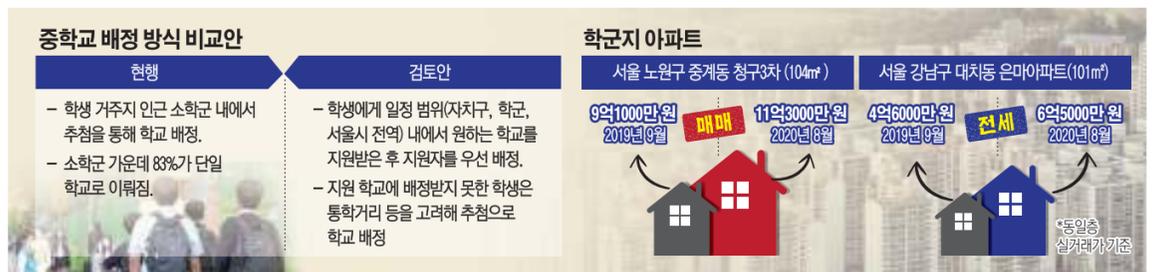
검토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초 ‘중학생 신입생 배정 방법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마감했다. 중학교 배정에 ‘선(先) 지원, 후(後)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중학생 1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개편 방향을 물었다.

선지원 후추첨제는 말 그대로 학생에게 원하는 학교를 지원받은 후 지원 결과에서 밀린 학교는 통학 거리 등에 따라 학교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입학 정원도 다수를 지원자에게 배정한다. 지원제에 정원 60%를 배당하는 고등학교 배정 방식과 유사하

다. 현재 중학교는 거주지 주변 소학교군에 속한 학교 가운데 추첨으로 신입생을 배정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관련 용역을 수주한 공주대산 학협력단은 현행 중학교 배정 방식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와 이동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중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입학 지원을 받는 후보군으로 자치구와 소속 학군, 서울시 전역 등 세 가지 안(案)을 제시했다.

문제는 지원에서 밀렸을 때다. 학생이 지원한 학교에서 떨어지면 추첨제 정원으로 들어가거나 그마저 안 되면 정원을 못 채운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과 연구진은 추첨제를 적용할 때도 통학 거리를 고려하겠다고는 했지만 학부모들은 자녀가 집과 먼 학교나 인기 없는 학교에 배정될 것을 우려한다. 이 때문에 서울



시교육청 홈페이지엔 8700여 명이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청원에 참여했다. 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실제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학군 개편은 부동산 시장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사이에선 중학교 지원제가 명문 중·고교나 학원가와 가까운 지역인 이른바 ‘학군지’ 선호 현상을 더 부추겨 주변 부동산 시장까지 불안하게 만들 것이란 의견이 적잖다.

서울 동작구 동작동에 사는 학부모 A 씨는 “이렇게 되면 지원한 학교에 떨어져도 다른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강남 선호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양천구 목동에 사는 학부모 B씨

도 “원하는 학교에 떨어지면 더 사교육에 매달리게 될 것이고, 타 지역에서 좋은 학교에 배정되면 자녀를 위해 근처에 전세라도 얻는 게 부모 마음”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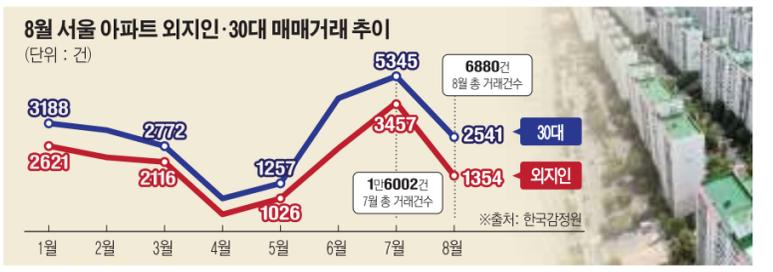
그렇잖아도 강남과 목동, 중계동 등 학군지 주변 주택시장은 지난해부터 불안한 상황이었다. 정부가 2025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를 폐지하고 대입 정시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좋은 학교, 학원가에 대한 수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 전용면적 104㎡형은 지난달 11억3000만 원에 팔리면서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만 해도 이 아파트는 9억 원대에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맹모들의 전세 수요가 많은 강남구 대

치동에선 전셋집 구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가 됐다. 전세 수요는 꾸준한데 임대차법 개정, 재건축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 공급이 줄어서다. 지난해 4억 원대였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은 이달 들어선 6억5000만 원까지 뛰었다.

반면 중학교 배정 제도 개편이 지역간 교육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지원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근거리 배정 원칙을 배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학교에 대한 입주 수요, 특히 전세 수요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서울 아파트 지난달 매매 거래 57%로 ‘뚝’ 30대·지방 큰손 매수 ‘반토막’

30대 비중은 36.9%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 속에서 30대와 외지인의 매매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6880건으로 전 월(1만 6002건)의 57%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같은 거래 절벽 속에서 눈에 띄는 건 지방 큰 손들의 매수 위축이다. 지난 7월 3457건으로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달 1354건으로 쪼그라들었다. 매수 비중은 21.6%에서 19.7%로 줄었다.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 처음이다.

그간 매수세가 강했던 강남3구에선 송파구가 21.55%→20.8%, 강남구가 25.4%→22.8%로 줄었다. 서초구 역시 26.4%→23.4%로 감소했다.

시장에선 6·17 대책과 7·10 대책 등 정

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키운 게 외지인의 매수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30대의 ‘패닉바잉’(공황 구매)도 일단 수그러들었다. 지난달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2541건으로 7월(5345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12·16 대책과 코로나19로 위축됐다가 지난 6, 7월 패닉 바잉을 등에 업고 급격히 살아났다. 30대는 이 기간 서울에선 각각 3601채, 5345채를 사들였다. 그러나 극심한 매물잠김과 코로나19 재확산, 너무 오른 집값 등으로 매수세가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30대는 모든 연령층 중 여전히 매입 1위를 지켰다. 지난달 30대의 매입 비중은 36.9%로 지난해 1월 통계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현대건설, 6700억 규모 ‘필리핀 남북철도 1공구’ 수주

현대건설이 필리핀 정부가 발주한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를 따냈다. 이로써 현대건설은 싱가포르, 미얀마, 홍콩,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총 1조 원 규모의 토목·건축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필리핀 교통부가 발주한 총 5억7300만 달러(약 67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에 대한 낙찰통지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사의 주관사로 참여

하며, 현지업체인 메가와이드 및 토공 전문건설사 동아시아와 전략적으로 제휴했다. 현대건설 지분은 57.5%로, 3억 3000만 달러(3838억 원) 규모다.

필리핀 남북철도 제1공구 공사는 마닐라 북부 말로로스과 클락을 연결하는 총 연장 약 53km의 남북철도 건설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총 5공구 중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제1공구는 지상 역사 2개와 약 17km 고가교를 세우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8개월이다. 문선영 기자 moo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9월호 발매

COVER STORY 브라보 음악에 차어스!

PART1. 음악의 가치 음악은 늙지 않는다

PART2. 중장년 음악문화 서바이 하드워킹은 변함없고 소프트한 감성은 그대로

PART3. 추억 속 음악 찾기 숫자로 알아보는 추억의 앨범들

PART4. 음악에 반하다 신의 음조권 선율로 듣는다

PART5. 노래가 삶을 부를 때 인생 오선지 위 음표처럼 찍힌 그때 그 노래

PART6. 음악 감상실을 가다 LP 한 장 들고 떠나는 감상여행

신라보가 만난 사람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바로 예술” 배우 박원익, 아트디렉터로서 재능의 인생을 열다

모치시미같은 명상과 같이 새로운 세계로 내려다준다 윤수영 모토워드 대표가 말하는 모치시미의 새로운 경지

안영국 한방이 손길과 깊은 호흡에 이르는 길 직업을 통해 평화를 꿈꾸는 우영호 작가

더불어 숲
내 마음에 구름 걸리면 부처가 보인다

박원익이 만난 귀한 사람들
나만의 낙원을 꿈꾸었다, 그러나...

안녕, 시골아, 드디어 내가 너에게 왔노라! 그대처럼 그렇게 호호한 인사말을 들을 거를 못했다. 경기도 화성시에서 사업을 하다 귀농한 김영숙(54) 씨. 그의 귀는 알은 귀였나? 그는 “농지며 참이며 겨저 쓸 수 있으니 문란 오라는 지인의 말까지 듣고 권유를 받고 달려와 달려 내려간 참이었다. 그러나 막상 가서 보니 상황이 영 달랐다.”

김혜영의 느린 여행
버려진 시골집의 재탄생 '규암리자온길'

벽제고도 부여에는 벽제의 친린한 문화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 한편으로는 벽제 유적지 말고는 이렇다 할 관광 콘텐츠가 없어 아쉬웠다. 지난 전 규암면 규암리 자온로에 재탄생 프로젝트라는 마을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그 첫 단추가 독립서점 '책상재간'이었다. 호기심을 얻고 찾아간 시골 책방은 꽤 신선했다. 지금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 다시 가보다.

엄마가 엄마에게
면역력과 민생질환 예방을 위한 육류의 버섯, 녹황색 채소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김대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선임연구원
농축면 더 받는 '돌출한' 국민연금

생생 부동산 현장
비규제지역에 가려진 '알짜' 호재들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한 지역이 있다. 부동산 규제에 피려 아직 안전하다. '투자할 만하다'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수요가 몰린 '김포한강신도시'다. 그렇다면 다른 호재는 없는 걸까. '김포한강신도시'의 잠재력 미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봤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1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대우조선, 분식회계 피해주주에 108억 배상”

수능 지원자 역대 최저 50만명 아래로 떨어져

재판부 “안진회계법인도 감사 소홀 과실”... 손배소 연달아 승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등이 피해자들에게 1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된 30여 건의 투자자 소송 중 세 번째 승소 판결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투자자 137명과 48명이 각각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대표이사,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08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 회계연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공시하면서 허위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안진회계법인은 이재무제표가 ‘적정 의견’을 기재한 허위 감사보고서를 만들어 공시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이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1만 2500원이던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8750원으로 떨어졌다. 한국거래소가 2016년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자 주가는 4480원으로 폭락하기도 했다.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고 전 대표는 “분식회계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대규모 손실을 은폐하거나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난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투자자들이 이미 매도한 주식이나 그 이전의 주가 하락분은 인과관계가 없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실이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시장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해 감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과

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대표에게는 전체 손해의 70%, 안진회계법인은 30%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는 항상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당시의 경제 동향과 신문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해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원고들이 오로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만 의존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2월 대우조선해양 등이 투자자 291명에게 102억 원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 이후 6월에도 투자자 30명에게 10억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김중용 기자 deep@

졸업생 비율은 최고치 기록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 수가 1993년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졸업생 지원자 비율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1일 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수능 지원자는 49만3433명으로 2020학년도(54만8734명)보다 10.1%(5만5301명) 감소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수능 지원자는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2년 연속 감소세다.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지원자 수가 50만 명 밑으로 내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3 재학생 지원자는 34만6673명으로 12%(4만7351명) 감소했다. 재수생을 포함한 졸업생은 13만3069명으로 6.5%(9202명) 줄었다.

고3 재학생이 더 감소한 탓에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7%로 2020학년도 수능인 지난해(25.9%)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졸업생 비율은 2004학년도(27.3%) 이후 가장 높다.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1만3691명으로 1년 전보다 10.1%(1252명) 늘었다.

이른바 ‘아랍어 로또’를 기대하는 현상도 여전했다. 영역별 지원자 비율을 살펴보면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선 ‘아랍어 I’ 지원자(68%·5만2443명)가 가장 많았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랍어는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로또 영역’으로 불린다. ‘아랍어 로또’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뀐다.

손현경 기자 son89@

“불안하지만 학교 믿어야죠”

현장 가보니 등교 수업 재개 첫날 서울 한산초등학교

발열 체크하느라 교문 앞 긴 줄 “애들, 친구들과 다시 만나 다행” 학부모 ‘기대·긴장’ 표정 교차

“아이가 가정학습을 지루해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한 번만 쳐다봐. (찰칵) 됐다. 잘 다녀와.”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손을 꼭 잡고 등굣길에 나선 이연희(44·가명) 씨는 학교가 준비를 철저히 해준 덕분에 불안감이 덜하다고 말했다. 학교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헤어지면서 자녀가 안전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21일 1~2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앞은 긴장감과 함께 오랜만에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 교사, 학부모들의 설렘이 공존했다.

이날은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중단된 지 27일 만에 등교하는 날이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등교 인원은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이날 오전 8시가 넘어서자 한산초와 붙어 있는 한산중에 등교하는 2학년 학생들이 먼저 거리를 가득 채웠다. 8시 50분이 넘어서자 마스크를 쓰고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의 손을 잡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중앙현관에서 발열 확인을 하기 위해 교문 밖으로 이어진 대기줄은 8시 50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를 찾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경엔 100m가 넘게 늘어서기도 했다. 한산초 교감 등 교문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거리두기와 발열 안내를 서둘렀지만 긴 줄은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최근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단체 확진자가 나오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했다.

1학년 자녀를 둔 한용수(40·가명) 씨는 “지역에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2학년 자녀를 둔 박주은(42·가명) 씨는 “불안감이 전혀 없진 않지만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학원보다는 학교가 더 안전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대면 수업을 해 다행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학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나온 이재영(45·가명) 씨는 “선생님,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현경 기자 son89@

한끼애®
집밥프로젝트

대한민국 인기 메뉴를
만두에 담았다!



한성기업
Since 1963

서울 '깜깜이 감염' 30% 육박

강남구 디오빌 관련자 누적 16명 신규확진 23명...40일 만에 최저 65세 이상 고위험군 비율도 높아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달 11일(15명) 이후 40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23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2~15일 26명→32명→74명→146명으로 폭증한 뒤 같은 달 26일에는 154명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이달 16일부터 최근 5일간은 63명→46명→40명→28명→23명으로 줄었다. 발생 원인별로는 집단감염 6명, 확진자 접촉 10명, 경로 확인 중 5명, 해외접촉 2명이다. 산발적 집단감염은 다소 줄었다. 관악구 소재 사우자나와 강남구 소재 디오빌 관련 확진자가 1명씩 늘어 누적 확진자는 각각 9명, 16명이 됐다.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줄었지만 감염경로를 알수 없는 '깜깜이 감염'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2주(6~12일) 전 전체 확진자의 25.6%였던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는 지난주(13~19일) 28.8%로 증가

했다. 코로나19 확진 시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도 여전히 높다. 전체 확진자 중 65세 이상은 2주전 34.8%에서 지난주 33.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1주간 집단 발생 사례는 △직장 관련 101명 △종교시설 관련 45명 △병원 및 요양병원 관련 41명 △기타36명 △다중이용시설 관련 13명순이다. 21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4995명이다. 격리치료 중인 환자는 962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3985명이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48명이 됐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서울 차 없는 주간 기념캠페인 2020 서울 차 없는 주간(9월 21~27일)을 맞아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및 서울 차 없는 날 민간단체조직위원회 시민단체 대표 등이 21일 서울광장에서 차량 배출가스 제로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마포구, 청년 취업 지원 '현직자 취업 멘토링' 운영

서울 마포구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 구직자의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 멘토링' 사업을 12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드림마포캠프 '현직자와 함께하는 취업 멘토링'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가 재직 중인 선배로부터 관심 직무에 대한 멘토링과 특강, 모의면접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12월 15일까지 19회 진행만 39세 이하 선착순 모집 참여대상 218명 대폭 확대 멘토링은 22일부터 12월 15일까지 19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청년드림마포캠프는 기존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공기업, 유통, 금융, 정보기술(IT) 개발 등 다양한 직무를 중심으로 설계됐다.

참여 대상은 지난해 인원 46명에서 대폭 늘어난 218명을 모집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선착순 모집하되 정원의 50%까지 마포구 거주자 또는 마포구 소재 대학 졸업자(또는 예정자)를 우선 선발한다. 직무멘토링과 직무특강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이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의면접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한다.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오픈

소상공인-공공기관 직거래 첫 전용 마켓

공공기관이 소상공인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이 문을 열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은 소상공인과 공공기관이 거래할 수 있는 지자체 최초의 전용 마켓이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공사·출연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70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잠재 소비자다. 서울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7000여 개 공공기관은 연간 2000억 원 이상을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매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소상공인 공공마켓 오픈을 계기로 소상공인 제품 공공구매를 활성화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공공구매라는 새로운 판로를 개

척해 실질적인 매출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전용 사이트에서 제품·서비스를 손쉽게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 현황정보 사이트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자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업체 등록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들이 빠른 배송이나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제품·서비스 구매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을 지원해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기관의 예산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소상공인 제품 구매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동대문구, 희망일자리 550명 추가 모집

서울 동대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550명을 2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공공일자리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 1세대 2인 참여자 등은 제외되며 실직자와 대학교 휴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동대문구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최종 참여자를 선발하고 29일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된 참여자들은 다음 달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근무한다. 모집 분야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발열 체크, 생활방역 등으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다.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시간급 8590원)이 적용된다. 만 65세 이상 참여자는 안전을 위해 1일 3시간 근무할 수 있다. 이채용 기자 mywish73@

사회적 기업 창업과 경영의 모든 것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바이어로 사회적 기업 창업 시대다. 정부 지원과 각종 육성 정책 덕분에 청년, 퇴직자 등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기업은 도전할 만한 대안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육성 프로그램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절대 만만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며,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할까? 현실은 대수롭지 않다. 실패들은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공공단체가 제공하는 대수롭지 않고 실용적인 정보나 경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회적 기업은 과연 나의 이상과 현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이다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KODS 이나현 대표가 10년간 현장에서 겪은 창업과 경영의 생생한 노하우를 담은 실용 매뉴얼이자, 후속한 성장형이다. ODS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별 구체적인 제시와 모델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하려는 분들의 고민에 동행하고 싶은 현업에서의 책임감에서 출판에 기술했다.

이나현 대표도 사회적 기업 초창기에는 도움이 필요

물 주는 멘토도 선택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 기업의 기본인 회계정부를 작성하지 않아 겪은 아찔한 경험,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까지 자신과 구성원들의 명과 열정, 재정적 위기의 순간 등 그간 겪었던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가감없이 유머러스하게 펼쳐진다. 그는 아무런 역경과 난관이 오더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사람에 대한 믿음, 사회적 미션 수행에 대한 사명감을 잃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고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각종 지원과 행정적 절차와 의무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한다. 사회적 기업 교육의 기회, 사회적 기업 인증 단계와 절차, 각종 지역별 지원 제도와 혜택, 구성원 채용 절차, 마음의 자세, 인력 활용 문제 등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담겨 있다.

148면 | 15000원 | 9788961111111

10권의 책 속에 담긴 1,000권을 읽어내는 느낌의 철학

HOW 10권을 읽고 1000권의 가치를 읽는 책 읽기 기술

어쩌다 보면 책을 다 읽어도 가슴에 남는 구절 하나 없다면 당신은 당분간 책을 손에서 내려놓아야 한다.

읽기의 즐거움을 찾아보면 당신에게 독서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게 될 뿐, 같이 있는 위기로 자기 성장의 길을 찾게 된다.

이영호 저 / 232쪽 / 4800원 / 97811580038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세컨드카’도 ‘육하원칙’ 따라 골라라



김준형의
오토인사이드

팔방미인보다 용도·목적 맞는 차
퍼스트카와 다른 차종 선택 필요
출고 1~3년 된 중고차도 경제적

“밥도 못 먹고 학교 오는데, 자가용 등교가 웬 말이나.”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둔 1988년 봄. 서울 신촌 Y 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흠날리는 벚꽃 사이사이에는 갖가지 동문회 개최와 동아리 회원 모집, 외국어 특강을 알리는 현수막이 휘날렸다.

반듯하게 정돈된 현수막들 한쪽에는 분노에 찬 필체의 거친 현수막도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이제 막 ‘미아카 붐’이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젊은 대학생의 자가용 등교가 하나의 문화로 성장하던 때였다.

“자가용 등교가 웬 말이나”라는 외침처럼 사회 양극화는 당시에도 논란이었다.

◇1가구 1차량 시대 지나 인구 2명당 한 대꼴=그렇게 30여 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고, 더는 대학생의 자가용 등교가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반복하면 20대 초반의 젊은이도 꿈(?)에 그리던 중고차를 손에 넣을 수 있는 시대가기도 하다. 그만큼 자동차 시장이 성장했고, 문화도 발달했다.

밥을 못 먹고 등교하는 대학생은 많이 줄었지만 “밥을 굶어서라도 내가 타고 싶은 중고차를 사겠다”라는 젊은 자동차 마니아는 오히려 늘었다.

자동차도 그만큼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약 2080만에 달한다. 자동차 등록 대수(2020년 6월)는 2402만 대(이륜차 제외)를 넘었다. 1~2인 가구가 급증했으나 자동차 증가세가 더 빨랐다. 어느새 세컨드 카(보조 차) 시대가 성큼 도래했다는 뜻이다.

인구로 따져보면 자동차는 2.1명당 1대 꼴이다. 미국(1.2명)과 독일(1.6명)·일본(1.7명)보다는 적지만 성장세는 이들보다 확연하게 빠르다.

◇세컨드 카 고르기 10계명...“세상 달라졌다”=현대차는 올해 4월 7세대 이반떼를 선보이며 ‘세상 달라졌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우리 집 세컨드 카’를 앞세워 다양한 마케팅도 추진 중이다.

1가구 2대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1 오프로드 매너

2 와인딩 고수

3 자녀 등하원

1 말끔한 세단을 보유했다면 캠핑, 나아가 오프로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SUV와 픽업도 좋은 선택이다. 사진은 쉐보레 콜라라도의 오프로드 주행 모습. 2 운전 재미를 즐기는 매니아라면 현대차 벨로스터N같이 작고 임팩트 있는 세컨드 카로 제격이다. 3 자녀 등하원과 마트 장보기 등 주행거리가 짧은 도심 위주 주행이라면 연비 좋은 소형차가 세컨드 카로 알맞다.

동차 문화에도 이른바 ‘세컨드 카’ 문화가 자리 잡은 셈이다.

두 번째 차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할 부분도 여럿이다. 예컨대 가정에서는 두 번째 차를 고를 때는 먼저 “누가 탈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차종과 차급이 나뉘기 때문이다.

둘째, 용도가 중요하다. 자녀들의 등하교와 마트 장보기 등 근거리 운전이 중심

이라면 크고 화려한 차보다 작고 실용적인 차가 제격이다.

셋째, 범용보다 전용에 가까운 차를 고르는 게 좋다. 다재다능한, 그래서 여러 용도에 쓰이는 첫 번째 차와 달리 두 번째 차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차를 고르는 게 좋다. 성능과 연비, 공간 등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차가 제격인 셈이다.

넷째, 유지비도 따져야 한다. 당장에 수

입이 2배로 늘어난 게 아니라면 세컨드 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퍼스트카(주로 사용하는 차)보다 유지비가 덜 드는 차를 사는 게 이득이다.

다섯째, 같은 종류와 차는 피한다. 퍼스크카로 세단을 보유 중이라면 SUV와 미니밴, 경차 등 차별화된 모델을 골라야 활용도가 올라간다. 거꾸로 지금 미니밴을 보유 중이라면 장거리 운전이 편한 세단이

세컨드카 고르기 10계명

- 1 누가 탈 건지 먼저 결정하세요.
- 2 용도를 따져 보는 게 좋아요.
- 3 범용보다 전용에 가까운 차가 좋지요.
- 4 주행거리, 특히 유지비를 생각하세요.
- 5 같은 종류의 차를 또 사려고요?
- 6 주객전도는 안 됩니다.
- 7 개성을 마음껏 뽐내 볼까요.
- 8 중고차도 나쁘지 않아요.
- 9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요.
- 10 친환경차에 도전하는 건 어떤가요.

제격이다.

◇과도한 치장보다 개인기 따져야=여섯째, 주객전도를 막아야 한다.

세컨드 카는 이름 그대로 메인 자동차가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차여야 한다. 세컨드 카에 과도한 치장이나 투자는 금물, 있는 그대로 성능과 기능을 십분 활용하는 게 좋다.

일곱째, 더 과감한 선택도 권장할 만하다. 색상도 대표적이다. 메인 자동차를 고를 때 걸로 튀지 않는 검정과 회색 등을 골랐다면 세컨드카는 과감한 노랑과 빨강도 어울린다. 자칫 품위를 지켜야 할 자리에 나간다면 검정색 퍼스트카로 옮겨타면 그만이다.

여덟 번째 메인 카를 보조하는 만큼, 중고차를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출고 1년 또는 3년 된 중고차를 권장할 만하다. 상품성 대비 가격 효율성이 높은 연식들이다. 세컨드 카를 고를 때에는 단종 여부를 따지지 말아야 한다. 이름 그대로 세컨드 카다.

아홉 번째, 전문가들은 세컨드 카를 고를 때 포기할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을 주문한다. 가정의 퍼스트 카가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세컨드 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세컨드 카를 고를 때 ‘친환경차’를 골라보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빠르게 친환경 차로 이동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차가 우리 주변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성을 물론 경제성까지 지니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내연기관보다 짧아 선택의 걸림돌이다. 그러나 세컨드 카로 이들을 고를 때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 장거리 운전이 나서야 한다면 당신 곁에는 이미 넉넉한 주행거리와 주유 걱정이 없는 퍼스트 카로 옮겨탈 수 있으니까.

junior@

티볼리·코나 등 소형SUV 세컨드카로 인기

2018년부터 경차 판매 앞질러
엑센트 등 소형 세단 수요 흡수

1가구당 평균 자동차 보유 대수(이륜차 제외)가 한 대를 넘어선 것은 2009년부터다. 상용차와 화물차 등을 포함한 보유 대수지만 이 무렵부터 중산층 가정부터 세컨드 카를 하나둘 보유하기 시작했다.

초기 세컨드 카 시장은 경차에 점철됐다. 아빠가 퍼스트 자동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면 자녀를 태우거나 장보기에 필요한 용도로 경차는 모자람이 없었다.

그러나 경차의 거머쥔 세컨드카 시장



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로 인해 에어백과 ABS 등 갖가지 안전장비를 기본으로 갖춰야 했다.

가볍고 단순하며 뛰어난 연비로 경제성에 치중한 경차는 이때부터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결국, 1000cc 미만의 경차에 옵션 몇

가지를 추가하면 소형차는 물론, 준중형차에 맞먹는 견적서를 받기도 했다. 이 무렵부터 경차에 대한 인기를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경차가 놓친 세컨드 카 수요는 고스란히 B세그먼트(소형) SUV로 옮겨갔다.

현대차 엑센트와 기아차 프라이드, 쉐보레 아베오 등이 경쟁하던 1300~1600cc급 소형차 시장은 사라졌고, 이를 대신해 소형 SUV가 속속 등장했다. 엔진과 변속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경차 못지않은 연비를 뽑아내면서 인기를 끌었다.

결국, 큰차를 좋아하는 선호도가 확산하고 SUV 인기에 힘입어 소형 SUV도 빠르게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소형 SUV와 경차(상용차 제외) 판매는 각각 2만8559대와 19

만3979대를 기록했다. 소형 SUV 판매는 경차의 15% 수준에 머물렀다.

본격적인 반전은 3년 만인 2017년 시작했다. 소형 SUV 판매(14만359대)가 경차(14만7465대)를 턱밑까지 추격했다. 쌍용차 티볼리와 현대차 코나 등이 잇따라 SUV 시장을 확대하면서 가파른 증가세도 기록했다.

2018년 판매는 소형 SUV가 경차를 크게 앞질렀고, 지난해 경차 판매(12만2861대)는 소형 SUV(17만8710대)의 68% 수준에 머물렀다.

1991년 국민차(티코)에서 시작한 경차의 역사는 세컨드 카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으나 이제 소형 SUV에게 이 자리를 내주며 시장 퇴출 위기를 맞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Shinhan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당신을 위한 은행은?

고석환 사장님
성신여대 '고석환 손만두국' 운영

동네 장사만 할 줄 알지
가게 알리는 법은 잘 몰랐죠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손님도 희망도 늘어나도록
도움을 받는다면 참 좋겠는데..

신한은행이 딱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신한은행은
고객의 모든 고민에
가장 따뜻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금융
신한은행



우리동네 응원 프로그램

신한은행이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가게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점 내 광고판을 내어드립니다

*신한은행 전국 32개 영업점 내 디지털 전광판 / 포스터를 통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광고 무료 게시 (시범 운영 후 대상 영업점 확대, 모바일 솔(SOL)에서도 서비스 게시 예정)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77-8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 2020-11035-2호 (2020.8.21~2021.7.31)

“시청각 장애인도 즐기는 ‘모두를 위한 TV’ 만들어요”

‘접근성 제품 개발’ 삼성전자 이의운 수석연구위원

수어방송 화면 확대·폰 카메라 영상 미러링 화면 기능 등 도입 당장 수익 안나지만 회사서 적극 지원... 英 왕립협회 인증 획득

채널을 돌리고, 원하는 소리로 볼륨을 조절하고, TV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이해하는 것까지. 흔히 ‘TV를 시청한다’고 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는 당연한 과정이다. 하지만 눈이나 귀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품전략팀에서 접근성 제품 개발을 맡은 이의운 수석연구위원은 ‘모두가 TV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장착한다’는 생각으로 TV를 기획하고 있다. 2020년 삼성 스마트 TV에 도입된 새로운 기능들 역시, 실제 사용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결과물이다. 이 위원은 “청각 장애인들의 이해를 돕는 수어 방송이 화면 한쪽에 작게 표시되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수어 위치를 자동 인식한 후 원본 대비 최대 200%까지 확대해 보여주는 기능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모바일 연동 글자 확대 기능을 활용해 삼성 휴대폰 카메라에 보이는 영상

을 큰 미러링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능도 실사용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올해부터 새롭게 장착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 TV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성 기술을 개발해, 눈이나 귀가 불편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7년이 지난 지금, 삼성 스마트 TV는 소비자 가전제품 최초로, 영국 왕립 시각장애인 협회(RNIB)로부터 ‘시각장애인 접근성 인증’을 획득하며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삼성전자는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자로도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연말까지 접근성 기능을 갖춘 1만5000여대의 TV를 저소득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다.

TV 기능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못 느낄 수 있지만, 실사용자로서는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개발자들은 영국 왕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상품전략팀 이의운 수석연구위원이 삼성 스마트 TV의 접근성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립 시각장애인협회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의 해외 장애인 단체도 찾아가 의견을 수렴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농아인협회와 협업하고 있다.

이 위원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TV를 편하게 시청할 수 있게 만들어 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 뿌듯함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특히 그는 “사실 접근성 기술은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데,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날 가전제품에서 제일 주목받는 기술이기도 한 인공지능(AI)을 접근성 기능에도 적용해 많은 장애인이 제품을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허창수 회장, 6·25 참전국 대사에 격전지역 특산물로 추석선물 전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사진) 회장이 한 국전쟁 발발 이후 70번째 추석을 맞아 참전 22개국 대사와 유엔 사령관에게 격전 지역의 특산물로 추석인사를 전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치열했던 전투가 벌여졌던 한반도 곳곳은 7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홍수, 태풍 등 여러 재난재해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변함없이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다”며 참전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와 풍요로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 회장은 서한과 함께 추석맞이 우리 농산물 선물세트도 전달했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대표되는 인천강화지역의 홍삼절편, 수차례 격전이 있었던 가평의 잣,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중심이었던 경기도의 쌀과 강원도의 더덕청,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유역의 경북 사과 등 5종의 특산물로 구성했다. 김바리 기자 kimstar1215@

바이오의약품협회 새 집행부 구성 약사행정 전문가 이정석 회장 선임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이정석(사진) 신임 회장을 비롯한 제4기 회장단을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협회는 17일 2020년 임시 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정석 회장과 장정호 이사장, 안재용 비상근 부회장을 각각 선임하는 제4기 회장단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정석 회장은 서울대 약학대학 졸업 후 1983년 보건사회부 약정국 근무를 시작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까지 30년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행정 최고전문가로 봉직했다. 이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를 지냈고, 최근까지 한국FDC법제학회법제연구위원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과학전문가 교육에 참여해왔다. 유혜은 기자 euna@

한국오노약품공업, 최호진 대표

한국오노약품공업은 10월 1일 자로 신임 대표이사에 최호진 부사장이 취임한다고 21일 밝혔다.



2014년 한국오노약품 공업에 영업 마케팅 총괄이사로 입사한 최호진 신임 대표이사는 면역항암제 ‘옵디보’의 국내 론칭과 보험상환약가취득에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한국오노약품공업에 입사하기 이전에는 한국 J&J,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엘리간 등에서 근무했고 미국 쉐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국제 경영학(MBA)을 졸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블라인드 코딩대회 온라인 개최 성적 우수자 경력사원으로 채용 현대오트모터, 모레까지 접수

현대오트모터가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블라인드 코딩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코딩 챌린지는 학력, 성별, 전공 등을 모두 비공개로 해 진행되며 만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 인원이 선착순 700명에 도달하면 조기 마감된다.

이번 챌린지는 26일 오후 1시에 시작해 최대 3시간까지 소요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부정행위 방지와 지원자 간 응시 형평성을 위해 온라인 감독 기능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 득점한 우수자에게는 경력 채용 우선 기회가 부여된다. 채용 우선 기회 대상자는 앞으로 적합한 자리가 발생하면 우선 지원 자격이 주어지며, 서류와 인성검사 없이 면접 전형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채용이 이뤄진다.

현대오트모터는 전통적인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블라인드 코딩 챌린지 등의 IT 개발 역량 중심 채용 방식을 통해 디지털 뉴딜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적절한 시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홀로그램으로 ‘IFA 2020’ 무대 선 LG전자 박일평 CTO “라이프스타일 혁신가로 뉴노멀 시대 선도”

미디어플랫폼 ‘LIVE LG’ 기고

LG전자 박일평(사진)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이 팬데믹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LG전자의 혁신기술들로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1일 LG전자 미디어 플랫폼인 ‘LIVE LG’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이미 시작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서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터(Life-style Innovator)’로서 LG전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큰 관심과 공감을 얻고 있

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0’에서 LG 전자를 대표해 ‘홀로그램’으로 프레스 콘퍼런스 무대에 등단했다”며 “전시회 ‘가상’ 참가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맞닥트린 수많은 첫 경험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국가 차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원격 근무, 원격 수업 등 우리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해야 하는 현실에 처했다”고 달린 일상생활을 소개했다.

그는 “LG전자는 이러한 변화와 시도가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집 안과 집 밖, 고객 삶의 모든 공간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사장은 “뉴 노멀 시대에 ‘지속적인 변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직관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혁신적인 방식으로 꾸준히 제시해야 한다”며 “극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한 혁신(Innovations for a Better Life)’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매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육사 출신 육군총장’ 50년 독식 깨졌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내정... 사상 첫 학군 출신

공군총장에 이성용 합참 본부장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학군 23기 출신인 남영신(왼쪽 사진) 지상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학군 출신이 육군총장에 임명되는 것은 창군 이래 최초이며 1969년 서종철 총장(육사 1기) 임명 이후 51년 만에 나온 첫 비육사 출신 총장이다.

국방부는 21일 신임 육군총장에 남 내정

자를 임명하는 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울산 화성고, 동아대를 나와 학군 출신으로 소위에 임관한 남 내정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7공수특전여단장, 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3사단장, 특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 등을 거쳐 지난해 4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지상작전사령관을 맡아왔다.

신임 공군참모총장에는 이성용(가운데)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공사 34기)이 내정됐다. 신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에는 현 육군 참모차장인 김승겸(육사 42기·오른쪽) 중장이 내정됐다. 또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상사 참모장인 김정수 중장이 각각 내정됐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김수주

◆연합뉴스 ◇선임·부국장 전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추양훈 △전국부 진병태 △인프라운영부 정태성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 도광환 △사진부 백승렬 △울산 취재본부 이상현 ◇부장 전보 △통신TV부장 김지훈 △미디어전략홍보부장 김범수 △DB부장 신영철 △소비자경제부장 김문성 △사회부장 김중우 △융합뉴스부장 공병설 △울산취재본부장 장영은 △제주취

재본부장 김호천 △콘텐츠평가실 콘텐츠평가위원 고웅석 △인사교육부(연합뉴스 TV 과전) 박창욱 △인프라운영부 이동의 △국제뉴스2부 김범수 △편집국 탐사보도팀장 안승섭 △국제뉴스2부 김상훈

◆연합뉴스TV ◇부장 전보 ◇경제부장 박창욱
◆CBS △포항방송본부 대표 이재웅 △경남방송본부 대표 구병수
◆에너지경제신문 △편집부 편집위원(부국장) 김성진
◆서울파이낸스 △편집국장 김무중 △금융·증권부장 김호성 △산업부 차장 박시형 △광고부장 최연규

부음

‘고어텍스’ 개발한 로버트 고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방수(防水) 원단 ‘고어텍스’의 개발자 로버트 고어가 17일(현지시간) 83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고어텍스를 제조하는 미국 고어사는 화학공학자이자 최고경영자(CEO)였던 고어가 오랜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고어는 미국 유타주에서 태어나 텔라웨



어대학교와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각각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친 뒤 아버지와 삼촌이 1958년 설립한 고어사에 합류했다. 1969년 새로운 형태의 폴리머를 개발한 고어는 이를 10배 길이까지 잡아당겼을 때 물방울 입자보다도 작은 미세 구멍이 수십억 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이 원단의 방수 기능을 알아본 고어는 자신의 이름을 딴 ‘고어텍스’라는 명칭을 붙여 1976년 세상에 선보였다.

▲이상암 씨 별세,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정보문화보호팀장) 씨 부친상 = 21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지

하 2층 8호실, 발인 23일, 02-1522-7000
▲전운현 씨 별세, 윤정숙 씨 배우자상, 전지훈(더불어민주당 최준용 의원실 비서관)·석훈 씨 부친상, 김현주 씨 시부상 = 20일, 전남 순천 성가톨릭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3일 오전 9시, 061-900-4444
▲곽경자 씨 별세, 박상준(유한기술경영지원본부장)·소운애(여선중학교 교사)·소은(장신대외대교수)·장혁(AXA다이렉트 차장) 씨 모친상, 성희영(여도중학교 교사)·조희정 씨 시모상, 김태문(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씨 장모상 = 21일, 보림여수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061-684-4444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드



동국대 명예교수 한국국제통상학회 고문

보도의 프레임이 긍정적으로 할 때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태도로 반응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지 연대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추구한다. 반면 부정적으로 프레임할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 즉 벌칙 화를 낸다든지 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

일전에 대학병원 내과에 근무하는 고교 동기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받았다.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와 검사 건수, 그리고 양성 확진 비율과 치사율을 비교하는 자료였다. 우리의 검사 건수 대비 확진율은 1%, 인구 대비 양성자 비율은 0.044%,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1.65%였다. 반면, 미국의 확진율은 8%, 인구 대비 양성자 비율은 2.46%, 치명률은 2.94%였다. 이에 따라 사망률은 우리가 0.0007%, 미국이 0.061%가 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코로나 방역에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의 치명률로만 보면 우리의 경우 계절독감과 큰 차이가 없는데 지나친 경계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용이었다.

9월 17일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와 함께 첫 확진자 발견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빨라

지고 있다고 한다. 확진자 수로 보면 미국이 682만 명으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고, 사망자 수만 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누적 확진자 수에서 인도(511만 명), 브라질(442만 명), 러시아(107만 명)가 미국의 뒤를 잇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2개의 정보는 모두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이다. 그런데도 먼저 언급한 자료는 우리에게 코로나19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을 주는 반면, 후기한 자료가 위기의식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과제구조를 어떻게 설정(framing)하느냐에 달려 있다. 과제구조의 설정은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반응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보도의 프레임이 긍정적으로 할 때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인 태도로 반응하여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는 지 연대를 형성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을 추구한다. 반면 부정적으로 프레임 할 경우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

즉 벌칙 화를 낸다든지 하여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우울감(blue) 또는 분노(red)로 나타나는데 최근 분노가 많아졌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활동과 방역의 균형 문제는 코로나 발병 이후 현재까지 세계 공통의 관심사항이다. 스웨덴, 영국처럼 경제활동을 중시하여 초기에 집단방역을 유도하였던 국가도 있고, 우리와 같이 사스, 메르스 등 감염병 경험이 많았던 국가들은 그 과정에서 방역체제를 확립하여 경제활동을 희생하더라도 방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했다. 또한 미국과 같이 경제활동의 자유를 무엇보다 중시하여 코로나가 대폭 확산하도록 방치한 나라도 있다.

현재 많은 수의 확진자를 낸 나라들은 경제활동을 중시하여 철저한 방역에 소홀히 했던 나라가 대부분이다. 우리의 경우 2015년 메르스 경험이 K방역 체제를 정비하게 된 '예방주사'가 되었다는 평가다. 실

제 방역 실적에 있어서도 미국에 비하여 확진율, 인구 대비 양성자 비율, 치명률 모든 수치에 있어서 우리가 월등하다는 사실을 통계는 보여주고 있다.

결국 우리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제도를 낳았고, 제도는 통계자료의 보도 태도를 프레임하여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경험은 현재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대응 태도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코로나 방역의 정치적 이용과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국민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감시 등의 문제 제기 등 우리 국민은 코로나 '피로'로 지쳐 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우수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프레임된 통계 보도로 지쳐 있는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는 대신 짜증과 의혹을 일으키고 굳이 정신적으로까지 충격을 더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 혼자만일까? 아니라고 본다.

정책발언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2014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학회에 참가했을 때였다. 아크로폴리스를 마주하는 야경을 볼 수 있다는 리카베투스 언덕으로 오르는 길에 우연히 덴마크에서 온 중년 남성과 동행했다. 남유럽 경제위기가 한창이었을 때여서 그런지 동양에서 온 젊은 여자가 홀로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마음 쓰였던 것 같다. 어떻게 이곳을 오게 되었는지 서로의 이야기를 했다. 그는 은퇴 이후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있다고 했다. 열심히 일했으니 그동안 적립한 연금으로 인생을 즐길 자격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고는 신이 나서 카메라를 꺼냈다. 그동안 자신이 다닌 여행의 흔적들을 보여줬다. 열심히 일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웃으며 즐기는, 사회복지정책 교과서에서 나오는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었다.

중년 이후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을 주제로 공부하는 해외 학자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노인 행복 수준에 놀라워한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40대에서 최저점을 보이는 'U자형'의 행복 점수 패턴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이후 행복 점수가 도무지 올라가지 않는다. 높은 노인빈곤율을 떠올리면 노인의 낮은 행복 점수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만,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도 올라가지 않는 건 이상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청년기에 학업을 마치고,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독립한다. 이후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열심히 살다가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새 자녀는 독립하고 주된 일자리로부터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이른다. 좀 더 젊었을 때 어려운 취업의 문을 뚫으려 정형화한 스펙을 쌓고, 취업 후엔 다달이 카드값을 내며 내 집 마련만을 목표로 저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노후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일과를 주어진 임무처럼 완수하며 열심히만 살다 보면 흰머리가 나고, 체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런데 막상 그 모습이 되면 당황스럽다. 새로운 과업들도 낯설다. 50대를 맞이해도 딱히 성취해놓은 게 없다. 이룬 것 없이 늙은 모습을 보며 행복 점수가 높아질 리 없다.

2018년 기준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빈곤하지 않기 위한 월 소득은 120만 원 정도다. 그런데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총 지급액을 전체 수급자 수로 나눈 평균 지급액은 같은 해 월 34만 원 정도이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월 최대 20만 원 정도다. 아직 빈곤하지 않다는 기준까지 66만 원이 모자라다. 덴마크에서 만난 사람처럼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기여한 것으로 노년기의 경제력을 담보해줄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충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열심히 살았지만 공적 체계만으로는 은퇴 이후가 마냥 밝지 않다. 더 일해야 하고 여전히 돈을 벌 공리를 해야 한다.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 나이듦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중년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리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한국은 경제적 발전 수준에 비해 국민이 누리는 행복 수준이 낮은 '이상한 선진국' 중 하나이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고, 코로나19 대응에선 방역 선진국이라는 찬사를 받지만, 연금만으로 여행을 다니며 노후를 즐길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정도 선진국에 사는 국민인데, 이제는 좀 느긋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삶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차근차근 제도를 정비하면서 경제 수준만큼 노후 준비와 복지 수준도 높인다면 우리나라도 '이상한 선진국'이 아닌, 나이가 들어도 행복한 '그냥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로런스 요기 베라 명언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뉴욕 양키스의 1940~60년대 황금기를 이끈 대표 포수. 그는 감독을 맡으며 요기즘(Yogism)이라 불리는 많은 명언을 남겼다. 대표적인 것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결국 거기로 가지 못할 것이다", "기록은 깨질 때까지만 존재한다" 등. 오늘 그는 세상을 떠났다. 1925~2015.

☆ 고사성어 / 만장홍진(萬丈紅塵) 만 장이나 되도록 하늘 높이 뻗어 오르는 말. 한없이 구차스럽고 속된 세상이란 뜻이다. 홍진은 티끌 많은 속세를 나타낸다. "갈대 꽃이 불을 덮고 눈 위에 누워 구름 속에 잠든다면 한 집의 청명한 밝기만을 다 누릴 수 있고, 숲속에서 바람을 읊조리고 달을 희롱하면 이 세상의 더러움 모두 떨칠 수 있으리라 [吟風弄月 芽離了萬丈紅塵]." 출전 채근담(菜根譚) 후집(後集).

☆ 시사상식/액티브 펀드(active fund) 펀드매니저들이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자산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해가며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시장 전망에 따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종목을 선별하면서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장기투자는 액티브 펀드보다 인덱스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속담 / 죽을병에도 살 약이 있다 어떠한 곤경에서도 희망은 있는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 유머 / 헛기침 효과 목사가 설교 중에 교인들이 자꾸만 헛기침을 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가 사모에게 말했다. "오늘 감기 걸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두가 헛기침만 해대더라고. 그래서 설교를 평소보다 짧게 끝냈지." 사모의 대답. "일찍 끝내기 잘하셨어요. 교인들이 헛기침한 건 감기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가 끝날 시간이 지났다는 신호였어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아." 울여름 갑자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다. 왼쪽 팔을 올리지만 해도 신음소리가 나왔다. 어깨가 아프다는 것은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다.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팔을 뒤로 넘기는 일이 많다. 가령 샤워타월로 등을 문지르거나 단추 없는 니트를 머리 위로 벗을 때, 토익 시험장에서 OMR답안지를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뒤수험자에게 넘겨줘야 할 때. 갑자기 찾아오는 통증은 사람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만든다.

무엇보다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하는 것부터가 성가시다. 분명히 어깨가 아픈데 고통은 목, 어깨, 팔 전체로 찾아와 정확히 한 군데를 콕 집어 말하기가 힘들다. 가장 화날 때는 의사가 고통의 근원지를 찾지 못하는 경우다. 의사들은 열에 아홉은 나 같은 환자라는 듯 '검은 것은 바탕

기지사첩

나경연 금융부/contest@



기념사 엑스레이

이요 흰 것은 뼈'인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서 "필름상으로는 이상이 없으니 평소 바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세요"라며 단순히 진료를 끝낸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의 날 기념사에 '공정'이 37번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다.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보도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특혜 논란을 의식한 담화문이었다. 공정에 예민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애매모호한 기념사에 청년들은 냉담한 반응이었다. 공정 때문에 화가 난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고통의 근원지를 정확히 집어줘야 했다. 촛불정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엄마 찬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를 목인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특혜를 지시한 자와 받은 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한 진료가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처방전이었던 것이다.

재작년부터 보도된 금융권 채용비리에 이어 울여름 나이스(NICE)그룹 부회장이들의 황제 병사 논란, 그리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카투사 무단이탈 논란까지.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로움을 내세우는 문재인 정권의 근본이 계속 흔들리고 있다. 문서상으로는 특혜에 가담한 이들의 불법성을 찾아내기는 힘들다. 그들 스스로가 꾸준히 도덕성과 윤리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오늘도 정형외과는 이상 없는 엑스레이 필름이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주소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빛투·영끌의 그림자

1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 17조 9023억 원. 8월 은행 기타대출 5조7000억 원 급증.

빛투(빛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 흔적이 사상 최고·사상 최대라는 수식어를 동반하면서 각종 경제지표를 통해 잡히기 시작하고 있다.

2년 미만 정기예금 등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광의통화(M2)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0.1% 급증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0월(10.5%)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록에서 이를 두고 한 금통위원은 “6월 이후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처럼 최근 M2 증가율 움직임에서 시장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가계대출 증가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점차 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올 초 동학개미운동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한 개인들의 주식·부동산 투자 열풍이 가시지 않는 모습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데 이익을 달 만한 이는 없다. 다만 문제는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빛을 내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경제 펀더멘털과 자본시장 간 괴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간 무역 갈등, 미국 대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로존 탈퇴) 등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들이다.

마냥 오르기만 할 것 같은 주식과 부동산 값이 행여 고꾸라지더라도 한다면...

데스크칼럼

김남현
기획취재팀장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투자 책임은 오로지 그 투자자에게 있다지만 이런 현상이 현실화한다면 개인들이 그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싶다.

또 개인들만의 문제로 그치지도 않을 게다. 이를 두고 한 금통위원은 “과거 주가 상승기에 비해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금융 시장 불안 재현 시 그 파급 양상이 이전과 사뭇 다를 수 있다”며 “즉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만일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금융시스템의 문제로 비화될 위험은 줄겠지만, 개인의 손실 확대가 실물 경제 충격으로 이어질 위험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빛투·영끌 열풍은 표면적으로는 올 초부터 시작된 저금리와 확대재정정책 속에서 피어났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서 정부 당국이 유동성을 풀자 시중금리는 급전직하했고, 이전 은행에 1년간 정기예금을 들어도 받을 수 있는 금리는 0%대에 그치게 됐다. 반면, 대출금리는 2% 중반까지 떨어져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와 더불어 불안한 고용에 있다. 여기에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미래 희망에 대한 상실

감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 중인 사람들의 집값이 하루아침에 몇 억 원이 올랐다는 소식은 소외감을 자아내기 충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위기 때마다 새롭게 등극한 주식부자들에게 대한 학습효과도 더해졌다. “이번이 아니면...”이라는 말들이 빛투·영끌 투자자들의 입에서 절로 나온다는 점은 이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글로벌 섀도우(일시폐쇄) 조치로 서비사업종을 시작으로 불었던 고용 불안은 제조업까지 번졌다.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974억 원을 기록해 1달 연속 1조 원대를 지속했다는 소식은 이를 방증한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미래 희망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입시를 위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 문제도 아닌 반 문제를 두고 경쟁했고, 대학에서는 잠시 낭만을 즐길 틈조차 없이 입사시험 준비와 학자금에 치여야 했다. 이런 와중에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에 그쳤고,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사회문이 더 좁아졌다.

2000년대 취업·결혼 등을 포기한 ‘N포 세대’에 이어, 현재는 ‘기름기를 뺀 살코기처럼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배제한 삶을 지향한다’는 ‘살코기 세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 인간(人間)이란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뜻이라는 점에서 ‘살코기 세대’라는 말은 인간이기조차 거부한다는 실로 무서운 말이다.

빛투·영끌에 비친 그림자를 거둬 내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kimnh21c@

시설

9월 수출 증가세, 회복 기대는 아직 힘들다

9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반짝 증가세를 보였다. 관세청 통계에서 1~20일 통관기준 수출액은 29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억2000만 달러(3.6%)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의 충격으로 3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해온 수출이 부진에서 벗어나 반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비관적이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기간 조업일수(15.5일)가 추석연휴가 끼었던 작년(13.5일)보다 2일 많다. 조업일수를 감안한 하루 평균 수출은 9.8% 감소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의 수출감소폭이 -21.9%였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크다. 실질적으로 수출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9월 수출의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달에도 무선통신기기(-9.1%), 석유제품(-45.6%), 선박(-26.5%) 등 주력품목 수출이 크게 부진했다. 다만 반도체(25.3%)와 승용차(38.8%) 등의 증가세가 돋보였다.

앞으로의 여건 또한 좋지 않다. 코로나19에 따른 주요국들의 섀도우(경제봉쇄) 조치가 일부 완화되고,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불확실성 또한 증폭하고 있다. 당장 미국의 중국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가 15일부터 발효됨으로써 반도체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 반도체 수출 가운데 중국에 가는 물량이 40%를

넘는다. 미국의 중국 틱톡 및 위챗에 대한 제재에서 보듯 미·중 무역갈등은 악화일로다. 대중국 수출의 심각한 악재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정보통신(IT)과 자동차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 특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의 변수에도 불구하고,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통신사 버라이즌에 8조 원 규모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맺었다. 미국 애플이 올해 말 내놓을 아이폰12에도 삼성의 유기 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 반도체 경기 둔화를 막아 줄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수출이 한국 경제의 기동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 투자와 고용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성장의 후퇴도 피할 수 없다. 어떻게든 수출의 불씨를 살려야 하는데, 코로나19로 글로벌 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 기업의 대응역량만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의 총력 지원체제가 절실하다. 기업 활력부터 살려 투자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규제혁신은 수도 없이 제기된 최우선 과제다. 최근 급격한 하락으로 수출 악재로 부각된 원·달러 환율도 주시해야 한다. 수출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미세조정 필요성이 크다. 신시장 개척과 함께, 새로운 추세로 자리잡고 있는 비(非)대면 수출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문선영의 뿔뿔



부동산부 차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이 취임하신 지 오늘(21일)로 꼭 1190일째를 맞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중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록한 1187일(2008년 2월 29일~2011년 5월 30일)을 넘어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되셨습니다.

이제 장관님의 한결음, 한결음이 새로운 기록의 도전이 됩니다. 안 그래도 무거운 발걸음에 또 다른 부담이 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사실 장관님은 시작부터 녹록치 않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국토부 최초 여성장관’이란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며 취임했지만 비전문가 출신이라는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만만치 않았지요. 이미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시장 상황에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유동성 증가

김현미 장관님, 축하드립니다

와 저금리 기조까지 이어졌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투기과열지구(8·2 부동산 대책)를 부활시키는 강경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지요.

이후에도 장관님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이어졌습니다. 무려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전례 없는 고강도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크게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관님은 “대책 효과로 집값 상승세는 꺾였으며 시장은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요. 저도 올 하반기 중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장관님 말씀대로 대책 효과일지, 아니면 오히려 오른 집값이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 변수로 쉬어가기에 나서는 것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관님, 혹시 취임 당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맙시다.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

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합시다.”

맞습니다. 서울 집값이 한국감정원 자료로 14%가 올랐던 민간자료로 50%가 넘게 올랐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면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다는 뜻의 신조어)’로 집을 사야 하는 30대 가장과 정부를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세금 폭탄으로 노후가 불투명해진 60대 부부의 현실을 봐 주십시오.

‘행백리자 반어구십(行百里者 半於九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 리를 왔더라도 반으로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장관님이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기간 현장에서, 국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moon@

우리말 한 토막

고도리, 풀치 그리고 전어사리

천고마비지절(天高馬肥之節). 하늘이 맑아 높푸르게 보이고 온갖 곡식이 익는 가을철을 이르는 말이다. 이 시기에는 산란기를 맞은 바닷속 물고기들도 살이 올라 맛이 일품이다. 그중 가을이 되면 잃어버린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물고기 삼총사가 있다. 고등어, 갈치 그리고 전어가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고등어, 갈치, 전어는 성어(成魚)일 때 이름이다. 치어(稚魚)일 때는 이름이 다르다.

흔히 고스톱을 일컫는 ‘고도리’는 고등어가 새끼일 때 이름이다. 오늘날에는 새끼 고등어만 지칭하지만 원래는 치어, 성어 구분 없이 ‘고도리’라고 불렀다. 조선 숙종 때 중국어에 우리말 음을 달아 퍼낸 단어집 ‘역어유해(譯語類解)’에 고도리가 설명돼 있는데, 당시 고등어를 ‘고도리’라고 불렀음을 알 수 있다. 정약전의 ‘자산어보(鱻魚譜)’ 외 서적에 고등어를 高道魚, 高刀魚, 古刀魚(이상 고도어), 臯登魚(고등어), 碧紋魚(백문어) 등 여러 한자로 표기해 소개하고 있다. 이는 한자의

음만 빌려 쓴 것이므로 오늘날 고등어를 의미하는 한자 표기는 없다.

갈치는 ‘역어유해’에 군대어(鱈帶魚)라는 이름과 함께 한글로 ‘갈치’라고 기록돼 있다. 칼처럼 생긴 물고기라는 뜻으로 ‘칼[刀]’에 물고기류를 의미하는 접사 ‘-치(치)’를 합쳐 부른 것이 유래다. 새끼 갈치의 이름은 풀치다. 풀치 또한 생김새에서 이름이 유래해 풀처럼 휘어져 있어 풀치라는 설이 있지만 어원은 명확치 않다.

전어(鱻魚)는 고등어, 갈치와 달리 한자어다. 단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 ‘돈’과 관련한 유래가 있다. 조선 실학자 서유구는 ‘난호어목지(蘭湖魚牧志)’에 “전어는 귀천이 모두 좋아하고 맛이 좋아 사는 사람이 돈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소개했다. 그래서 ‘錢魚’라고 썼다는 것이다. 전어는 크기에 따라 대전어, 중간 옛사리, 전어사리 등으로 불리는데, 새끼 전어를 ‘전어사리’라고 한다. 보통 구이, 회로 먹는 가을철 전어는 뼈째 먹기 때문에 새끼 전어인 전어사리를 일컫는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 가전 11개 부문 수상 압도적 1위 LG

올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인정해주신 LG전자,
지금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2020년 고객만족도 1위 기념 감사 이벤트

기간: 2020. 9. 10 ~ 행사 종료시

1) '국가고객만족도 (NCSI) 11개 부문 1위' 소문내기 이벤트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소문내기 이벤트 참여자 중 총 1,100명 추첨하여
'올레드 TV 65, 워시타워, M9' 등 다양한 경품 증정

2) '국가고객만족도(NCSI) 11개 부문 1위' 대상 제품 할인쿠폰 100% 증정 이벤트

* 본 행사는 행사 참여 모델에 한하며, 모델 및 혜택은 매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LG 베스트샵 백화점에 문의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LG전자 멤버십 앱을 참조하세요



2020년 9월

종합

NCSI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 가전 11개 부문 1위 LG



* 본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11개 부문 수상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인공 건조기,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 정수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제습기
* 상기 제품 이미지는 NCSI 1등 수상 부문 제품 및 워시타워로 구성했습니다

LG전자가 올해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11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제습기는 물론 최근 필수가전으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의류건조기, 무선청소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정수기 등에서도 1위의 영예를

또한 LG전자는 뉴노멀 시대를 맞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4단계 청정 관리 기능을 탑재한 '휘센 에어컨', 모든 방향에서 공기를 흡입해 쾌적함을 만드는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자동 물 공급 시스템을 갖춘 '코드제로 A9S